

2024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 및 총선	6
나. 경제 성장세 유지를 위한 예산 및 정부 지출 확대	7
다. 신수도 이전 사업 1단계 완료 목표	9
라. 옴니버스 보건법 시행령 발표 예정	11
마. 할랄보장법 1차 계도기간 종료	12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5
2. 시장 분석	40
가. 시장 특성	40
나. 교역	47
다. 투자	57
라. 프로젝트	61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66
가. 교역	66
나. 투자 진출	71
다. 협력 유망 분야	77

III 진출전략

1. PEST 분석	86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87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88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99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102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104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104

Chapter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3년 글로벌 경제위기 속, 인도네시아 경제는 높은 성장세 유지 중

- '23년 경제성장률은 4.5~5.3%로 예상되며 내수 소비 확대가 성장 견인 중
 - 전년 대비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민간 소비 및 정부 지출 증가로 5%대의 성장 유지 기대
 - * '23년 2분기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은 각각 5.2% 및 10.6% 증가
 - ** '23년 2분기 글로벌 석탄 및 팜오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7% 및 42.0% 하락 (Bloomberg('23.9))
- 또한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세계 경제에서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황 극복 중
 - 1월부터 9월까지 기준금리를 5.75%로 9개월간 유지하다 강달러로 인한 루피아 가치 방어와 수입 물가 제어를 위해 10월 기준금리 6.00%로 상향 조정
 - * 인도네시아 및 주변국 화폐 가치 추이('22년 말 달러 대비 '23.10.18 기준) : (인도네시아 루피아) -1.03%, (말레이시아 링깃) -7.23%, (태국 바트) -4.64%, (필리핀 페소) -1.73%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 더불어 물가상승률도 안정세를 거듭하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관리 범주(2~4%)에 안착
 - * 월별 물가상승률: 5월(4.00%) → 6월(3.53%) → 7월(3.08%) → 8월(3.27%) → 9월(2.28%) → 10월(2.56%)

▣ '24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 기대

- 정부 및 주요 기관, 내년 예상 성장률은 4.7~5.5% 수준 전망
 - '24년 대선 및 총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를 유보하던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이행될 것으로 기대
- 선진 경제의 통화 긴축으로 인한 강달러 유지 및 중국의 경제 회복 여부 등의 변수가 내년 성장에 영향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	백만 명	260.6	262.9	265.3	267.5	269.8	272.0	274.2	276.4
명목GDP	십억 달러	1,011.0	1,042.0	1,119.0	1,059.4	1,186.3	1,318.6	1,400.8	1,501.3
1인당 명목GDP	달러	3,879.5	3,960	4,220	3,960	4,400	4,850	5,110	5,430
실질성장률	%	5.1	5.2	5.0	-2.1	3.7	5.3	4.9	5.0
실업률	%	5.5	5.3	5.2	7.1	6.5	5.9	6.0	5.3
소비자물가상승률	%	3.7	3.2	2.6	1.7	1.9	5.5	2.4	2.9
재정수지(GDP대비)	%	-2.5	-1.8	-2.2	-6.1	-4.6	-2.4	-2.6	-2.2
총수출	백만 달러	168,828	180,013	167,683	163,192	231,610	291,852	286,113	295,921
(對韓 수출)	"	8,200	9,540	7,234	6,508	8,982	12,809	12,557	12,987
총수입	"	156,986	188,711	171,276	141,569	196,190	237,447	234,979	249,095
(對韓 수입)	"	8,122	9,089	8,421	6,849	9,427	11,117	11,001	11,662
무역수지	백만 달러	18,814	-228	3,508	28,301	43,806	62,672	58,341	55,475
경상수지	"	-16,196	-30,633	-30,279	-4,433	3,511	13,126	9,825	9,505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3,381	14,237	14,148	14,582	14,308	14,850	15,088	14,880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2,008	6,399	4,463	5,033	3,927	6,612	6,386	5,100
외국인직접투자	백만 달러	20,510	18,910	24,994	19,175	21,213	21,053	20,000	21,000

주: 2023년 및 2024년은 전망치 기입(EIU), 對韓 수출입은 총수출입 증감률을 반영해 산출
 자료: EIU, 인도네시아 통계청(對韓 수출 및 對韓 수입)

- ※ '45년까지 세계 제5위 경제 및 1인당 국민소득 25,000달러 달성을 위한 초석 마련 기대
- '24년 2월 대선 및 총선 이후 차기 행정부와 국회는 세부 정책 향방을 결정할 것
 -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인적 자원 개발 및 인프라 확장 추진
 - 세부 정책 방향 및 시행령 등 발표를 통해 사업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가.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 및 총선

▣ '24년 2월 14일, 헌정 사상 최초로 대선 및 총선 동시 시행

- 차기 대통령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지가 관건
 - 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는 광물 다운스트리밍 산업 개발 및 전기차(배터리) 산업 육성 및 신수도 이전 계획 등
 - 특히, 현재 투자방향서만 제출한 각국 기업의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실제 투자 이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 * '23년 9월 기준 투자방향서(LOI) 265건 체결, MOU 7건 체결

▣ 3개 후보의 각축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각 후보의 중점 정책에 따라 경제 및 산업 육성 정책 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후보자별 여론조사 지지율, 주요 정책 및 한국과의 동향〉

후보(직책)	지지율	지지 정당	주요 정책	한국과의 동향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국방부 장관) * '14년/'19년 이후 세 번째 대선 도전	32~37%	- 그린드라당 (Gerindra) - 국민수권당(PAN) - 골까르당(Golkar) - 민주당 (Demokrat)	- 식량 안보 - 빈곤 퇴치 - 부패 척결 - 보건의에 대한 접근성 향상	국방부 장관으로서 KFX 프로그램 관여 중 ('22.11)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 방위산업 관련 협력 강화 논의 ('21.4) 한국 방문, 방위산업 및 지역 내 국방안보를 위한 협력 강화 논의

후보(직책)	지지율	지지 정당	주요 정책	한국과의 동향
 간자르 프라노워 (전 중부자바 도지사)	31~35%	- 투쟁민주당 (PDI-P) - 연합개발당(PPP)	-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 식량안보 - 디지털 인프라 구축 - 사법기관 강화	('23.7) 총부자바와 면담 진행, 경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 논의 * 충청북도-중부자바주 자매결연 ('23.2) 주인니 한국대사 중부자바주 방문 및 투자협력 분야 논의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	22~29%	- 나스렘당 (Nasdem) - 복지정의당(PKS) - 국민계몽당(PKB)	- 보건 시스템 강화 - 인재 양성 - 일자리 확대 - 부패근절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정한 법 집행	('23.9) 한류 및 K-컬처의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22.3) 자카르타 주지사 재임 당시 주인니 한국대사에게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대한 감사 표시 ('22.3) 수처리 시설 관련 한국과의 협력 논의

주: 지지율은 인도네시아 설문업체 결과 종합
 자료: 현지 언론 종합,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나. 경제 성장세 유지를 위한 예산 및 정부 지출 확대

▣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임기 마지막 연도의 우선순위를 설정, 국가 예산 증액(+6.45%)

- 인적 자원 개발, 보건 및 복지, 인프라 확장 및 식량 안보를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 기틀 마련
 - '45년까지 세계 경제 5위 및 1인당 국민소득 2만 5,000달러 달성을 위한 초석 마련 기대
 - 특히, 교육 분야와 인프라 부문 예산 증액이 도드라지며 인적 자원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이 목표인 것으로 분석

〈2024년 인도네시아 주요 분야별 예산 배정〉

분야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예산	증가율
교육	608.3조 루피아 (약 392.6억 달러)	660.8조 루피아 (약 426.5억 달러)	8.6%
보건	178.7조 루피아 (약 111.5억 달러)	186.4조 루피아 (약 120.3억 달러)	4.3%
복지	476.0조 루피아 (약 307.2억 달러)	493.5조 루피아 (약 318.5억 달러)	3.7%
인프라	392.0조 루피아 (약 253.0억 달러)	422.7조 루피아 (약 272.8억 달러)	7.8%
식량 안보	104.2조 루피아 (약 67.3억 달러)	108.8조 루피아 (약 70.2억 달러)	4.4%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 '24년 예산적자 수준은 GDP의 2.29%까지 허용할 계획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4년 명목GDP를 2경 2,831조 루피아(약 1,473조 달러)로 예상하며, 예산적자는 522조 8,000억 루피아(약 337억 달러)까지 허용할 계획
 -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예산적자가 크게 늘어난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
 - * GDP 대비 예산적자 : ('20년) 6.14%, ('21년) 4.57%, ('22년) 2.35%, ('23년) 2.30%, ('24년) 2.29%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출 세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나, 내수 소비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적자 관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 * '22년 총 세입은 2,043조 5,000억 루피아(약 1,319억 달러)로 당초 계획 세수에서 114% 증가
- 국가전략프로젝트(PSN)를 통한 인프라 구축 및 확장을 위해 정부 지출 증가
 - 조코 위도도 행정부의 중점 사업인 유료 도로, 발전소, 댐 등 인프라 개발은 지속될 전망
 -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와 국방부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공공주택 사업부는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총 23개 프로젝트(댐 건설사업 10개 포함)를 '24년 내 완료할 계획

〈인도네시아 주요 정부 부처 배정 예산〉

정부 부처	2024년 배정 예산
공공주택사업부	147.0조 루피아 (약 94.9억 달러)
국방부	135.4조 루피아 (약 87.4억 달러)
경찰	114.8조 루피아 (약 74.1억 달러)
교육연구기술부	97.7조 루피아 (약 63.1억 달러)
보건부	90.3억 루피아 (약 58.3억 달러)
복지부	79.2조 루피아 (약 51.1억 달러)
종교부	72.2조 루피아 (약 46.6억 달러)
재무부	48.4조 루피아 (약 31.2억 달러)
교통부	28.3조 루피아 (약 18.2억 달러)
선거관리위원회	18.3조 루피아 (약 11.8억 달러)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 에너지 부문에 189조 1,000억 루피아(약 122억 달러)를 에너지 보조금으로 배정
 - '24년 원유 가격 상승을 예상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보조금 배정
 - * '23년 9월 인도네시아 원유 가격은 배럴당 80달러이며, '24년 82달러까지 상승할 전망

다. 신수도 이전 사업 1단계 완료 목표

▣ 총 4단계로 이루어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 개발 완료 목표

- 프로젝트 단계별 계획 연도 및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
 - '23년 9월 기준 대통령궁과 정부 부처 진도율은 각각 38% 및 23% 달성

〈인도네시아 단계별 신수도 이전 계획〉

단계	연도	목표	세부 내용
1	2020~2024	초기 단계 이전	- 핵심 인프라 구축 단계 - 초기 단계 공무원 이전 - 50만 주민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24년 8월 16일 이전 대통령궁 입주 - '24년 8월 17일 제79주년 독립기념식 개최
2	2025~2035	핵심 영역으로 구축	- 도시 개발 단계 - 정부 부처 이전 완료 - 우선 경제 부문에 대한 개발 및 인센티브 실행 -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
3	2035~2045	모든 기반 시설 및 생태계 개발	- 완전한 연결 구축 단계 - 우선 경제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1위 목표 - 동남아 지역에서의 관광객 유치 상위 5위 도시 목표 - 순환경제 시행 - 인재 개발 및 혁신센터 개발
4	2045 이후	A Global City for All	- 전 세계 모두를 위한 세계 일류 도시로 도약 -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 상위 10위 목표 - 탄소 배출 제로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률 100% 달성

자료: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 신수도 개발 콘셉트는 'Future Smart Forest City'로 선정
 - 21세기 지속 가능한 스마트 열대우림 도시 콘셉트로 2045년 탄소중립 도시 구축 목표

〈신수도 개발 콘셉트 세부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신수도 누산타라는 75% 이상을 녹지로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수도 개발은 총 면적 중 25%만 사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나머지 75%는 녹지(숲)로 보존될 예정 - 모든 건물은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건축 	<p style="text-align: center;">80%의 누산타라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이용에 대한 규칙 적용 - 누산타라의 교통수단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운영 	<p style="text-align: center;">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 배출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풍력 및 가스 등 같은 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수요의 100%를 충족 예정

자료: 인도네시아 공공주택부 인스타그램

▣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신수도법 개정 추진

-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수도 이전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질지는 '24년 대선 결과가 관건
 - '23년 9월 기준 신수도청은 265건의 투자意向서(외국 기업은 약 50%)를 접수하였으나, 아직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
 - 불확실성 제거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 8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신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10월 3일 개정안 통과
 - 법 개정을 통해 차기 정부에서의 프로젝트 중단을 방지하고, 신수도청 권한 강화, 투자자의 토지 소유권 기간 연장 등 추진

라. 옴니버스 보건법 시행령 발표 예정

▣ 옴니버스 보건법 제정, 보건 관련 중앙정부 권한 강화

- 기존 보건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한 옴니버스 보건법 제정
 - 부족한 의사 수 및 낙후된 보건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질병 예방에 중점,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등 보건 산업 공급망 강화를 골자로 보건 의료체계 개혁 추진
 - '49년 전문의약품 관리법, '04년 의료행위법, '09년 병원법, '14년 의료인력법 등 11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롭게 보건법을 통합해 총 20장, 458개 조항으로 규정
- 의사 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및 외국 의사 면허 발급 기준 완화
 - 현재 인도네시아 국민 1,000명당 전문의 및 일반의 수는 WHO 권장 수보다 현저하게 적은 수준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절차 및 기준 완화

〈인도네시아 국민 1,000명당 의사 비율〉

(단위: 명)

구분	인도네시아	WHO 권장
전문의	0.16	0.28
일반의	0.69	1.00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WHO

- 의사실무면허(SIP) 획득을 위한 인도네시아 의사협회(IDI) 추천서 요건 폐지 및 의사 면허 발급 주체를 지방정부로 지정하며 지역 할당제 도입
 - 외국인 의사의 경우 역량 평가 및 인도네시아 의료기관에서의 적응기간 통과 시 보건부 장관 명의 진료면허 발급
 - * 저명한 의료기관 학위 취득, 2년간의 경험, 전문성에 대한 인증이 있다면 적응기간 면제
 - 면허를 받은 외국인 의사는 2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1차례 2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4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의료행위 가능
- 제약 및 의료기기 등 보건 산업 분야에 대한 공급망 강화
 - 제약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수요 및 수출 물량 충족을 위해 현지 의료시설에 국내 소싱 원자재, 국내 생산 제약 및 의료기기 우선 사용 요구
 - * 단, 제품의 품질, 효용 및 안전 사항 등을 반드시 고려

- 인도네시아에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R&D, 혁신활동 및 국내 원자재를 활용한 생산 시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 제공
- '24년 관련 시행령 발표를 통해 보건 체계 관련 불확실성 해소 전망
 - 보건 체계 개혁에 대한 큰 틀은 마련되었지만, 아직 세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각 분야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 * 예를 들어 옴니버스 보건법은 산업별 기준 및 요건 준수 의무를 부여했지만, 관련 세부사항은 '기타 인정 기준'으로 모호하게 명시
 - 옴니버스 보건법 제456조에 법률 시행일('23년 8월 8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위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24년 중 관련 정부 부처 시행령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

마. 할랄보장법 1차 계도기간 종료

▣ '14년 할랄보장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제도 정비를 거쳐 식음료 분야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 할랄 인증 없이는 유통 및 거래가 불가하며, 하람 재료 포함 시 예외 적용
 - '21년 정부령 제39호 제2조 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 영토에 반입, 유통 및 제품은 반드시 할랄 인증 취득 필요
 - 단, 제2조 2항에 따라 이슬람율법에서 금지된 하람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할랄 인증 대상 제품에서 제외 (제품에 Non-Halal 표기 필요)
- '24년 10월 식음료를 시작으로 분야별 계도기간이 점진적으로 종료될 예정
 - '21년 정부령 제39호에 따라 식음료에 대한 계도기간은 '24년 10월 17일부로 종료되며, 화장품, 의약품, 가정용품 등으로 확대될 예정
 - 현재 할랄 인증 제도는 계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시행 중이며, '24년 10월 17일 이후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통 및 판매 불가 대상
 - 또한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상점에서는 가판대를 분리하여 판매하도록 요구

〈제품별 계도기간〉

제품 유형	계도기간
식품(식음료)	2019.10.17~2024.10.17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2021.10.17~2026.10.17
의약품(OTC)	2021.10.17~2029.10.17
향정신성 의약품 제외 의약품	2021.10.17~2034.10.17
화장품, 화학, 유전공학제품	2021.10.17~2026.10.17
의류, 헤드기어, 액세서리	2021.10.17~2026.10.17
가정용품, 이슬람 종교의식도구, 문구류, 사무용품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A등급)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B등급)	2021.10.17~2029.10.17
의료기기(C등급)	2021.10.17~2034.10.17

자료: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령 제39호

▣ 이슬람 원칙을 준수하여 투명성을 증진하려는 것이 할랄 인증 제도의 핵심

- 국가 할랄 인증 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를 통해 무슬림 소비자(인구의 87%)의 신뢰 향상 및 종교적 권리 보호가 목표
 -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할랄 시장 보유, 연간 약 1,840억 달러 규모
 - 식품, 화장품, 의약품뿐만 아니라 패션, 금융 및 서비스 등에도 확대 적용
 - 글로벌 할랄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수단
 - 전 세계 21억 명으로 추산되는 무슬림 인구의 소득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할랄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을 증진하여 인도네시아산 할랄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를 통해 글로벌 할랄 시장 공략 목표
 - 인도네시아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할랄 시장을 공략하는 교두보 마련을 위해 할랄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 진출 증가 예상
-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 산업단지를 건립하는 등 할랄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중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24년 대선 이후 비즈니스 환경에 변화 예상
- 현 정부의 정책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차기 정부의 세부 항방에 따른 환경 변화

가. 정치 환경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지도는 높은 수준으로 임기 종료 전까지 정책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 임기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에도 전년 동기 대비 국정 지지도 상승
 -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도는 62.1%(’22년 10월)에서 74.3%(’23년 8월)로 상승
 - * Kompas R&D에서 7.27~8.7 1,364명 상대로 대면 조사
 - 특히, 정치 및 안보 분야(79.3%)로 표현의 자유 보장 및 행정부 관리 감독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중
 - 지지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법 집행 및 경제 분야(61.9%)로 부패 척결 및 경제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
 - 실제로 조코위 대통령의 2번째 임기에서 민주주의 지수는 개선되는 반면 부패인식 지수는 하락하는 추세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지수 및 부패인식 지수 추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	6.39	6.48	6.30	6.71	6.71
부패인식 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	30	40	37	38	34

자료: EIU, Transparency International

- 마지막까지 정책 기조에 대한 변함이 없이 꾸준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
 - 특히, 광물 다운스트림 산업 개발, 전기차 산업 육성,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은 지속될 전망

▣ '24년 대선 이후에 주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기대

- 투표 최종 결과 발표까지 치열한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
 - 대선 후보 3명의 경쟁 구도가 그려지고 있으며, 특히 프라보노와 간자르 후보의 각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단,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과거 프라보노와의 대선 경쟁에서 근소한 차이(득표율 55.5%)로 승리한 이력이 있어 투표 최종 결과 발표까지 당선자 예측이 어려움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2023)〉

구분		Poltracking	IPSOS	IPI
순위	1	Prabowo(37.0%)	Prabowo(31.9%)	Prabowo(36.1%)
	2	Gajar(35.2%)	Ganjar(31.3%)	Ganjar(33.7%)
	3	Anies(22.7%)	Anies(28.9%)	Anies(23.7%)
기간	10.2~8	10.17~19	10.16~20	
응답자 수 (명)		1,620	1,207	1,365

주: 인도네시아 3개 여론조사 업체에서 '23년 10월 각각 실시
 자료: 각 여론조사기관

-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시행되는 만큼 국내외 큰 관심을 받는 중
 - 차기 행정부와 주요 정당 의석수가 확정되기 전까지 국내외 기업은 투자 등 결정을 선거 이후로 유보하는 분위기
 - * '22년 9월 Nikkei Asia는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신수도 프로젝트 향방은 '24년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
 - 현 행정부 정책이 국민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는 만큼 해당 정책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세부 방향성이 확정되면 국내외 기업 투자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

나. 경제 환경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23년 경제는 4.5~5.3% 성장할 것으로 기대

-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22년 5.0% 성장 기록한 후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
 - IMF는 '23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을 5.0% 전망하며 다른 지역 및 국가 대비 도드라지는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인도네시아는 수요 측면의 경제 성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의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거시 경제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전 세계 주요 지역 및 국가 경제 성장 추이 및 전망〉

지역/국가	2021	2022	2023	2024
전 세계	6.3	3.5	3.0	3.0
선진 시장	5.4	2.7	1.5	1.4
신흥 시장	6.8	4.0	4.0	4.1
아세안 5개국	4.0	5.5	4.6	4.5
한국	4.3	2.6	1.4	2.2
인도네시아	3.7	5.3	4.7~5.3	4.7~5.5

자료: IMF, 한국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 내수 소비 및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경제 성장 견인

- 적극적인 내수 소비 부양책을 통해 민간 소비 회복
 -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23년 2분기 경제성장률을 5.2%로 발표,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 확대에 탄탄한 성장세 유지
 - '23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은 인도네시아의 수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 * '23년 9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한 1,923억 달러 기록
 - ** '23년 2분기 글로벌 석탄 및 팜오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7% 및 42.0% 하락 (Bloomberg('23.9))
 - 단, 내수 소비 회복 및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가 수출 감소분을 상회하여 인도네시아 정부 및 주요 기관에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
 - * '23년 9월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3.4% 증가한 851만 명 기록하였고, 호텔 투숙률은 5.1% 증가한 49.0% 기록

- 또한 '23년 정부는 지출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노력
- * 인도네시아 하원은 정부의 '24년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2.29%까지 확대 승인

〈인도네시아 분기별 민간 소비 및 정부 지출 성장률(2021~2023.2Q)〉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1Q	2Q
민간	-2.2	6.0	1.0	3.6	2.0	4.3	5.5	5.4	4.5	4.9	4.5	5.2
정부	2.6	8.2	0.7	5.3	4.2	-6.6	-4.6	-2.6	-4.8	-4.5	3.4	10.6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특히, 식음료 및 담배 분야에서의 소매 판매는 꾸준하게 증가 중
- * 분기별 증감률 : ('23.1Q) 4.8%, ('23.2Q) 4.6%, ('23.3Q) 4.3%
-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 중이나 흑자폭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
- '23년 1~9월 총 수출액은 1,923억 달러, 무역 흑자액은 278억 달러 기록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계(2022, 2023년 1~9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1~9월	2023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출	219,336.2	192,272.8	-12.34
석유·가스	12,152.2	11,790.3	-2.98
비석유·가스	207,184.0	180,482.5	-12.89
수입	179,486.6	164,519.6	-8.34
석유·가스	31,047.1	25,762.6	-17.02
비석유·가스	148,439.5	138,757.0	-6.52
무역수지	39,849.6	27,75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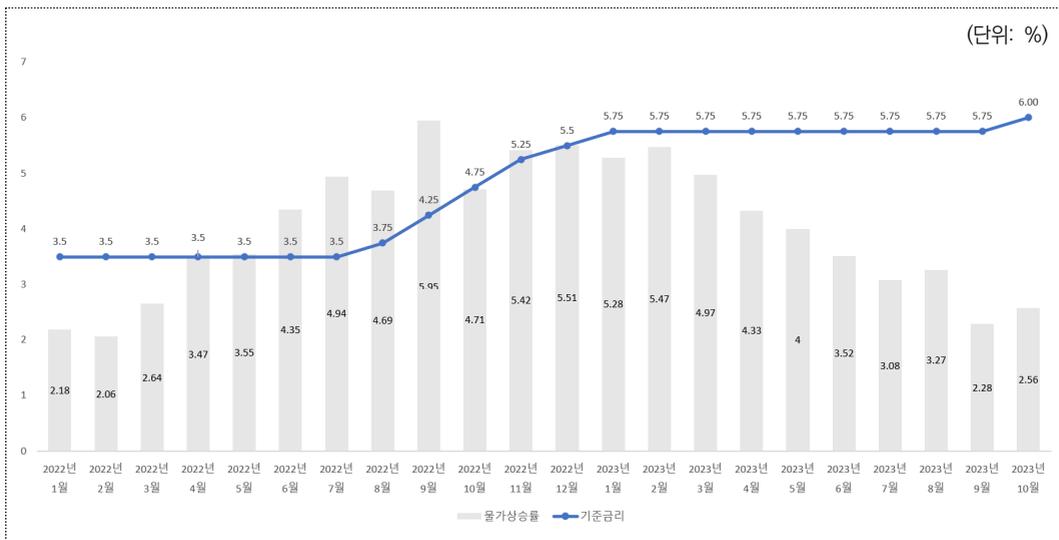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 '23년 9월 누적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품목은 석탄(3,277만 달러, 전체 수출의 18.2%)과 팜오일(2,142만 달러, 11.9%)이나, 전 세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석탄 및 팜오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9% 및 18.1% 감소
- * '23년 2분기 글로벌 석탄 및 팜오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7% 및 42.0% 하락 (Bloomberg('23.9))

▣ 물가상승률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민간 소비는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

- '23년 9월 물가상승률은 2.28%를 기록, 18개월 만에 2%대 안착
 - '22년 9월 5.95%까지 인플레이션이 치솟음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3년 1월까지 기준금리를 5.75%까지 올리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23년 4월부터 물가상승률은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며, 6월 3%대 진입 후 9월 2.28% 기록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 및 기준금리 추이〉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 환율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3년 1월부터 9월까지 5.75%로 유지하다 10월에 6.00%로 인상
 - 강달러 시기 환율 안정을 위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판단
 - * '23년 10월 18일 기준 '22년 말 달러 대비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는 -1.03% 하락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링깃, 태국 바트 및 필리핀 페소는 각각 7.23%, 4.64%, 1.73% 하락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 중동(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루피아 가치는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루피아 가치를 방어하고, 수입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 존재

다. 산업 환경

▣ 인도네시아 산업 개황

- 제조업, 광산업, 농림어업 등이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
 - '23년 2분기 기준, 제조업이 18.3%로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 농림어업(13.4%), 도소매(12.9%), 광산(10.5%), 건설(9.4%) 등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산업 구분	2022	2023.2Q
제조업	18.34	18.3
농림어업	12.4	13.4
도소매	12.9	12.9
광산	12.2	10.5
건설	9.8	9.4
운송 및 창고	5.0	5.9
정보통신	4.2	4.2
금융 서비스	4.1	4.1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 통계청

- '23년 모든 부문의 산업에서 연간 성장 예상
 - 코로나19에 대한 엔데믹 선언 이후 모든 분야의 경제 활동이 재개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별 성장률 추이〉

(단위: %)

분야	2020	2021	2022	2023e
농림어업	3.7~3.9	3.3~3.9	3.6~4.0	4.0~4.2
광업	1.8~2.0	0.7~1.7	1.8~2.3	3.2~3.5
제조업	4.9~5.4	4.7~5.5	5.5~6.1	5.4~6.0
전기, 가스, 식수	4.1~4.4	4.8~5.8	5.5~6.3	5.6~6.0
상하수도·폐기물 관리·정화활동	3.9~4.2	4.6~5.6	5.2~5.7	5.4~5.7
건설	5.6~5.9	5.3~6.5	6.0~6.9	6.3~6.9
도소매업	5.3~5.7	4.3~5.3	4.8~5.8	5.0~5.6

분야	2020	2021	2022	2023e
운송 및 창고	7.0~7.1	5.9~8.2	7.5~8.1	8.5~9.5
숙박 및 레스토랑(식음료)	5.8~6.3	5.5~7.9	6.0~6.9	6.6~7.3
정보통신	7.1~7.5	8.3~10.1	9.8~10.3	7.8~8.3
금융 서비스	6.1~6.6	5.6~6.8	5.5~6.0	3.4~3.8
부동산	4.8~5.1	4.9~5.9	5.3~5.8	4.3~4.8
비즈니스 활동 / 기업 서비스	8.3~8.6	8.9~9.9	7.5~8.2	4.7~5.3
정부 행정 및 사회 보험	4.4~4.7	4.2~5.2	3.2~3.9	2.3~2.6
교육 서비스	5.1~5.4	4.5~5.5	5.5~6.3	3.3~3.8
인간의 건강과 사회 서비스	7.5~7.7	4.7~5.5	6.9~7.5	8.7~9.3
기타 서비스	9.0~9.1	6.6~7.7	6.7~7.5	5.9~6.5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제조 부문은 '23년에 5.4%에서 6.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a) 소비자 구매력 회복으로 식품 및 음료 산업의 회복, (b) 국내 및 수출 가공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 (c) 국내 제품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 지출이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건설 부문은 정부 및 민간 건설 활동이 모두 성장하였으며, 정부 자본 지출 가속화 및 자금 조달 증가에 탄력을 받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광물 부문에서 다운스트림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정부는 니켈('20년) 및 보크사이트('23년) 수출을 금지한 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투자 증가와 자국 내 부가가치 비중 제고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동향 및 성장 전망(기초금속)

- 기초금속 산업 동향 및 전망
 - '22년 기준 기초금속 산업은 전체 제조업의 5.2%를 차지하여 식음료(38.4%) 및 타 분야*에 이어 6위를 차지
 - * 화학, 제약 및 전통 의학(11.1%), 운송장비(8.8%), 금속 제품, 컴퓨터, 전자, 광학 및 전기 장비(8.8%) 및 섬유(6.2%)
 - 기초금속 시장은 '23년까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23년 상반기 전체 제조산업은 4.6% 성장한 반면 기초금속 산업은 13.4%의 성장률 달성
 - 해당 산업에 대한 '22년 외국인 투자액은 전년 대비 57.2% 증가한 11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3년 상반기에만 54억 달러를 유치하며 증가세 지속

〈기초금속 산업 성장 추이〉

(단위: %, 외국인 투자액(백만 달러), 내국인 투자액(백만 루피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상
GDP 비중	0.7	0.8	0.8	0.8	0.9
성장률	2.8	5.9	11.5	14.8	13.4
외국인 투자	3,558.7	5,969.2	6,974.4	10,960.6	5,425.2
내국인 투자	8,183.0	8,857.6	15,665.8	13,950.5	8,733.4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투자부

- 정부 중점 정책 및 기타 이슈
 - '25~'35년에 인도네시아는 철강 생산능력을 '21년 1,200만 톤보다 증가한 2,500만 톤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산업부는 Krakatau Steel-Posco, Dexin Steel, Fuhai Indonesia, Hebei Bishi Group 및 Gunung Group의 5개 투자자로부터 추가로 2,920만 톤의 철강 생산능력에 대한 투자를 유치

〈2023년 인도네시아 금속산업 개발 목표〉

목표	국가 경제 기여도 확대	산업 자체 경쟁력 증진	역량 강화
지표	1. 연간 성장률: 5.1% 2. GDP 기여도: 1.5% 3. 고용인원: 957.7명 4. 수출액: 190.7억 달러	1. 전체 근로자 대비 고용비중: 0.7% 2. 근로자 생산성: 1인당 2.4억 루피아/연간 3. 투자액: 140.4조 루피아	1. 자국 부품 비중: 65.1% 2. 수출액 성장률: 7.8% 3. 수출기여도: 8.7% 4. 비석유 분야 수입 비중: 8.9%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동향 및 성장 전망(화학·제약)

- 화학 산업 동향 및 전망
 - 인도네시아 화학산업은 나프타 분해시설 등 주요 설비 및 인프라 부족으로 70% 이상 수입에 의존
 - LX인터내셔널은 '22.8월 인도네시아 최대 석유화학 기업 찬드라 아스리와 수소화 식물성 오일(HVO, 친환경 차량/항공용 연료) 현지 생산 협력 추진
 - 롯데케미칼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인도네시아 석유화학산업 진출 확대
 - *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39억 달러 투자 및 '25년 상업 생산 목표

- 제약산업 동향 및 전망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주요 분야로 제조업에서 식음료에 이어 가장 큰 비중 (11%) 차지
 - 인구 및 소득 증가, 건강보험 시행, 보건법 개정 등의 기초가 개선되고 있어 제약산업은 '25년까지 연평균 5.5% 성장하며 시장 규모는 37억 달러로 전망
 - 의약품 원료 90% 수입 의존, 다만 '22년부터 TKDN(국산 부품 사용 비중) 규제 강화, '26년부터 의약품 할랄 인증 의무화로 수입 비중은 감소할 전망
- 정부 중점 정책 및 이슈
 -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보건부는 원료의약품·화공약품 등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다며 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
 - (의약) '20년부터 수입품은 TKDN 충족이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했으며, '26년부터 의약품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비할랄(Non-Halal) 수입 제품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적용
 - * 의약품 TKDN(국산 부품 사용 비중) 계산법이 비용에서 가공 기반으로 변경
 - (화학) 천연자원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 부가가치를 높인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중점, '25년까지 파푸아 빈투만 가스, 북부 수마트라 세일가스 등 업스트림 석유화학 플랜트 확장 구축 프로젝트 시행

〈2021~2030 인도네시아 화학 분야 개발 로드맵〉

구분	1차(3~5년) 개발	2차(5~10년)	3차(10~15년)
달성 연도	2021	2025	2030
목표	기초 화학제품 수입 대체 30% 이상	합성화학 산업 육성, 제품 판매 확대 등	세계 5대 바이오연료 생산회사 육성
주요 내용	1. 수입대체를 통한 기초화학물질 수입 감소 2. 나프타, 올레핀, 아로마핀 등 기초화학물질 생산 확대 3. 석유산업 지원을 위한 합성섬유 생산 확대	1. 중간화학제품 생산 확대 2. 합성섬유 생산 확대 3. 기초 바이오화학 산업 육성	1. 바이오화학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2. 국내 수요와 수출 수요 최적 조정 3. 다국적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특별한 역량을 가진 화학기업 육성
주요 품목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합성섬유, 합성레진, 합성고무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연료, 바이오 원료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동향 및 성장 전망(도·소매 유통)

- 도·소매 유통 산업 동향 및 전망
 - 제조업, 농수산업에 이어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외부 요인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임
 -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와 사회활동 제한 조치로 불황을 겪었으나 점진적으로 회복하며 '23년 상반기 성장률은 4.7% 기록

〈도·소매·유통 산업 성장률 추이〉

(단위: %, 외국인 투자액(백만 달러), 내국인 투자액(백만 루피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상
GDP 비중	10.4	10.6	10.6	10.6	10.7
성장률	4.8	-1.3	3.1	5.4	4.7
외국인 투자	4,727.8	3,580.4	3,159.2	4,125.1	3,154.6
내국인 투자	68,082.6	93,272.8	61,241.5	75,138.4	32,439.9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투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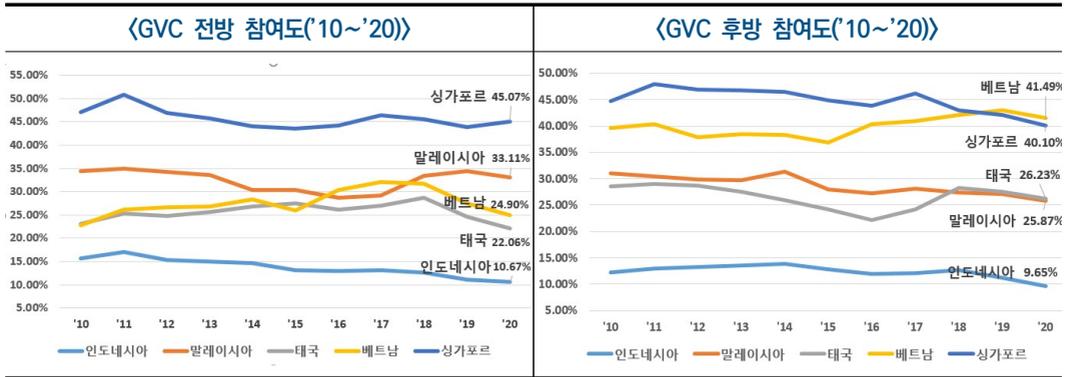
- 내년 목표 및 정부 중점 정책
 - '22년 외국인 투자는 전년 대비 30.6%, 국내 투자는 22.7% 증가, '23년에도 증가세 지속
 - 다만,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현재 11%에서 '25년까지 12%로 점차 올릴 계획으로 도·소매 유통 산업 회복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

라. 정책/규제 동향

▣ GVC 재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유망 제조산업 육성 정책 지속 추진

- 자원(원자재) 수출이나 단순 조립 형태 구조에서 탈피해 고부가 제품 생산을 통한 GVC(Global Value Chain) 상위 포지셔닝 추구
 - 인도네시아 GVC는 원자재나 1차 소재를 생산 후 타 국가로 수출하는 업스트림(Upstream)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운스트림 분야는 단순 조립 비중이 높음
 - GVC 참가도는 통상 업스트림보다 다운스트림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후방참여도는 타 아세안 국가 대비 낮은 편

〈아세안 주요국 아세안 역내 GVC 전후방 참여도 비교('10~'20)〉



자료: ADB MRIO('21.6),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데이터 가공

- 실제로 인도네시아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 원부자재로 총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8
소비재	16,454	14,656	20,183	19,832	14,004
가공 원부자재	126,356	103,210	147,380	181,337	107,317
자본재	28,466	23,703	28,627	36,355	25,857
총합	171,276	141,569	196,190	237,524	147,178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자국 유망 제조업 산업의 혁신을 통해 가공 원부자재 수입 비중을 낮추고 수출 비중을 높여 보다 적극적으로 후방 GVC 재편에 참여하기 위한 정책 추진 중

① 원자재 다운스트림 역량 강화

- (개발 방향) 광물, 석탄, 팜유 위주 다운스트림 강화
 - 매장량이 풍부한 해당 광물 위주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까지 도모

〈2024 인도네시아 지역별 다운스트림 산업 개발 로드맵〉

지역	중점 개발 품목
수마트라	고무, 카카오, 커피, 코코넛, 사탕수수, 육두구, 후추, 정향, 팜오일, 수산물
칼리만탄	고무, 후추, 커피, 코코아, 수산물, 석탄, 팜오일, 코코넛
자바-발리	농산물, 관광
누사틍가라	농산물, 수산물, 채광물, 관광
솔라웨시	니켈, 철광석, 코코넛, 후추, 육두구, 정향, 커피, 사탕수수, 팜오일, 등나무, 아스팔트, 천연가스
말루쿠	니켈, 코코넛, 정향, 육두구, 수산물
파푸아	커피, 카카오, 육두구, 케나프, 쇠고기, 코코넛, 수산물

자료: 인도네시아 정부 국가 계획(RKP 2024)

- (광물 개발 세부) 니켈, 보크사이트, 구리, 망간 등 자원 개발을 위한 제련소 건설
 - '09년 법령(정부령 4호)을 통해 원자재 형태 광물 수출 금지가 '14년부터 시행 중
 - 더해서 해당 법령을 통해 국내에서 광산 제품 가공 및 정제 의무화
 - '17년 일부 광물 원자재가 수출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지만 5년 이내 해당 광물 제련소를 건설해야 하는 조건이 붙음(조건 미이행 시 광물 수출 허가 취소)
 - 추가로 니켈과 보크사이트 원자재 형태 수출을 금지*하면서 국내외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지에 제련소 건설 투자가 필요한 상황
 - * 니켈('20년부 수출 금지), 보크사이트('23.6월부 수출 금지)
 - 제련소 설비 부족으로 구리, 철, 납, 아연 등은 '24년 5월까지 수출 금지를 유예하였으나, 제련소 건설 단계별 수출세(2.5~10%) 적용
 - 원자재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중간재 생산이 증가하면서 해당 분야 수출액도 증가하는 추세

〈인도네시아 주요 광물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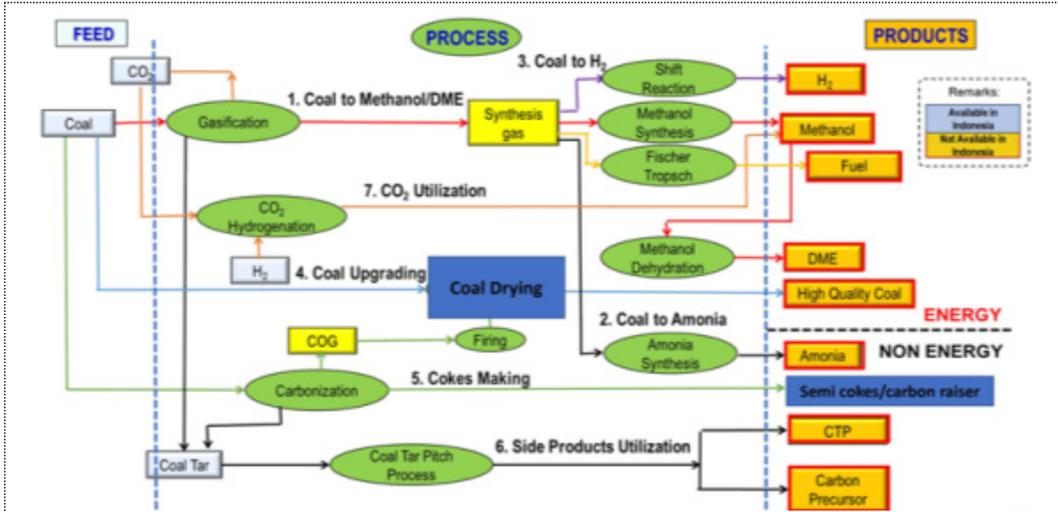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HS 코드)	2019	2020	2021	2022	2023.8
철과 강철(72)	7,387	10,862	20,925	27,823	17,375
철과 강철 부속(73)	1,258	1,191	1,604	1,758	1,083
구리 및 제품(74)	1,844	1,895	3,049	2,794	1,386
니켈 및 제품(75)	813	808	1,284	5,977	4,538
기타 비금속(80)	1,283	1,130	2,441	2,388	1,161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석탄 개발 세부) '30년까지 석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 중 하나로 풍부한 매장량 보유*
 - * 중국, 인도, 미국, 호주 등에 이은 5위 규모(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석탄(지하석탄 포함) 가스화, 코크스 제조, 석탄 액화, 석탄 품질 개선, 연탄 제조, 석탄수 혼합 등 최소 7가지 석탄 다운스트림 개발 중
 - '30년까지 총 3,760만 톤(공급원료/투입량)의 생산능력 확보 목표

〈인도네시아 석탄 다운스트림 개발 계획〉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 친환경 석탄 다운스트림 개발을 위해 정부에서는 9가지 인센티브 중 0% 로열티 부여와 현지 부품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시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추후 발표 예정

〈인도네시아 석탄 다운스트림 개발 위해 시행 및 논의 중인 인센티브〉

연번	세부 내용
1	(시행) 가스화 계획을 위해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 최대 0%까지 로열티 부여
2	(시행) EPC 회사들의 현지 부품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	가스화용 석탄에 대한 특별 가격 적용
4	가스화 프로젝트 경제 수명에 따른 광업 허가 유효기간 조정
5	석탄가스 경제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6	합성가스와 같은 석탄 가공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0% 적용
7	석탄 활용 청정에너지 DME(디메틸에테르) 벤치마크 가격과 설정
8	대체되는 LPG 비중에 따라 LPG 보조금 일부를 DME로 이전
9	해당 제품 구매 보장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 (팜오일 개발 세부) 단순 팜오일 원유 수출에서 팜오일 산업 중심지로 개발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오일 생산 및 수출국
 - 하지만 팜유 대부분은 원유(Crude Palm Oil) 형태로 수출되고 있어 환류되는 부가가치가 낮은 편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45년까지 인도네시아를 세계 팜유 파생상품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운스트림 개발 추진 중

〈팜오일 품목별 개발 분야〉

올레오식품(Oleofood)	올레오케미칼(Oleochemical)	바이오연료(Biofuel)
팜오일을 활용한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 개발 (팜유, 비타민 A, 마가린, 아이스크림, 코코아, 쇼트닝 등)	올레오케미칼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 개발 (바이오 계면활성제, 윤활제, 기타 소재 등)	바이오연료 최종재를 얻기 위한 중간재 개발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등)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30년까지 녹색 연료 생산량을 올해 대비 65% 증가한 1,400만 킬로리터(kℓ)까지 확대를 추진하며, '23년 8월 바이오디젤 의무함량 비중을 40%까지(B40) 증대

②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지속 개발

- 5대 중점 분야 제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진입
 -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기기와 제약 분야를 추가해 7대 중점 분야로 확대
- 주요 분야별 개발을 위해 국영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추진
 - 최근 들어 주력 산업별로 국영기업을 포함하는 지주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주요 산업 및 참가 국영기업〉

분야	핵심 국영기업	추진 배경	세부 계획
식음료	PT. Rajawali Nusantara Indah	○ 높은 수입의존도 - 수출 대비 수입액이 2배를 넘음(2017)	○ 자동계측·모니터링, 오토 파일럿 드론 등의 기술을 활용한 업스트림 생산성 향상(원료 자국 내 해결) ○ 지역별 수출 허브 활성화
섬유 및 봉제	-	○ 가파른 임금 상승, 노후화된 설비로 인한 낮은 생산성 ○ 높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	○ 업스트림 생산능력 및 품질 향상 ○ 기술 도입을 통한 고부가가치 섬유 생산 ○ 기능성 의류에 대한 내수 및 해외 수요 맞는 생산능력 증대

분야	핵심 국영기업	추진 배경	세부 계획
자동차 (전기차)	PT. PLN(에너지) PT. Inalum(광물) PT. Aneka Tambang(광물) PT. Pertamina(석유) PT. Indonesia Asahan Aluminium(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일본차 기업 지배력 탈피 ○ 공해 문제 해결과 에너지 안보 ○ 전기자동차 산업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규모 확대를 통한 원자재 및 핵심 부품 자급자족 ○ 기술 도입 및 물류 플랫폼과 같은 인프라 지원을 통해 GVC 진입 ○ 수출형 차종(저비용 그랜카, SUV) 등의 현지 위탁생산 유도 ○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
화학	PT. Biofar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한 내수시장 규모에 비해 높은 수입 의존도 ○ 내수 수요 충족이 불가능한 자국 기업의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가스전 근접 지역에 석유화학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높은 가격 경쟁력 달성 ○ R&D를 통한 생산성 향상 ○ 바이오 연료, 플라스틱 등 차세대 화학 제품 생산능력 개발
전자	PT. Telkom Indonesia PT. Pertam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필수 전자제품 생산 자국 기업 부족 ○ 선진국과의 큰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글로벌 제조 기업과의 협업 ○ 단순 조립이 아닌 고부가가치 전자부품 생산능력 배양 ○ 기술 도입 및 이전을 통한 내수 역량 확보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기술연구개발기구(BPPI),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Perpres No.18/2020

③ 산업단지 인프라 개발

- 국가 중점 육성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개발 인근지역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투자 시 유·무형적 인센티브 제공 예정
 - 개발 중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 사용 효율 극대화 추진
 - '23년 10월 기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128개의 산업지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24년까지 최소 27개 지역을 추가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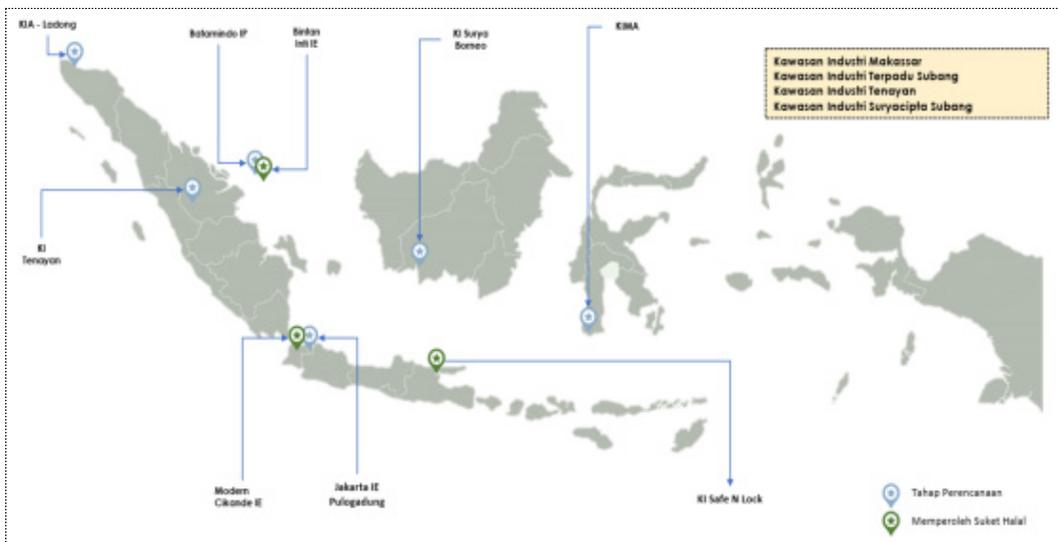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산업단지 개발 계획〉



자료: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4)

- 특별경제구역 확대
 - 수출가공, 물류, 공업, 기술개발, 관광, 에너지 등 목적에 따라 달리 지정된 경제특별구역 확대 추진
 - '23년 10월 기준, 12개 특별경제구역이 운영 중이며 6개가 개발 중
-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할랄 전용 산업단지
 - 할랄과 관련한 모든 시설과 인력이 입주한 할랄의 중심지로 개발 중
 - 해당 산업단지 입주 시 할랄 인증과 관련한 유·무형적 인센티브* 논의 중
 - * 할랄 인증 지원, 할랄과 관련한 각종 컨설팅, 할랄 필수 인력 지원, 세제 혜택 등
 - 정부에서는 할랄 산업단지 기업들의 할랄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23년 10월 기준, 3곳*의 할랄산업단지가 운영 중이며, 향후 추가될 전망
 - * 반텐 할랄모던밸리, 동부자바 세이프록 할랄산업단지, 리아우제도 빈탄인티 할랄허브

〈인도네시아 할랄 전용 산업단지 추진 지역〉



자료: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5), 인도네시아 산업부

▣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 인도네시아 국가온실가스 로드맵(NDC) 개정안 발표('21.10)
 - 자체 감축(1안)과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감축(2안)으로 목표 세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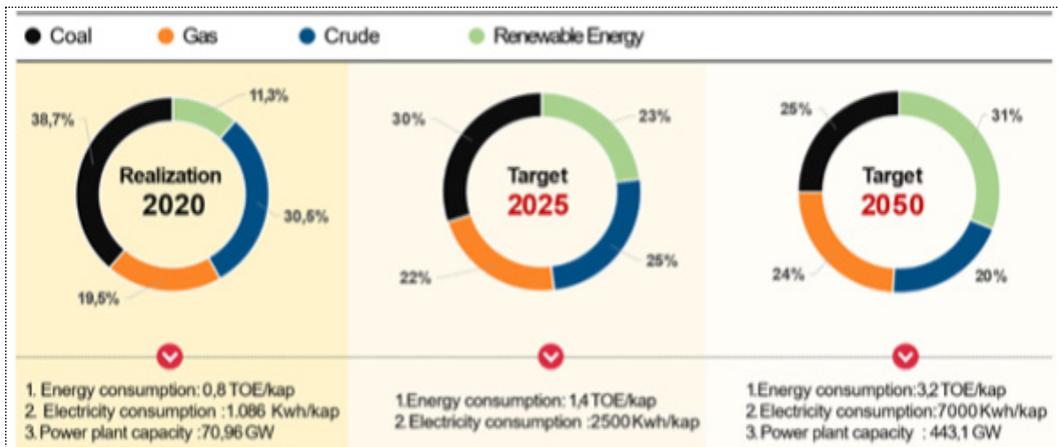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 로드맵(NDC)〉

온실가스 감축 목표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주요 내용
2030	① BAU 대비 29.0% (29 bil ton CO ₂ eq → 20 bil ton CO ₂ eq)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BAU는 2,869.0백만 톤 (조건 없이) BAU 대비 29.0%인 834백만 톤 감소 추진 (조건부) BAU 대비 41.20%인 1,185.3백만 톤 감소 추진
	② BAU 대비 41.2% (29 bil ton CO ₂ eq → 17 bil ton CO ₂ eq)	

자료: Updat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Republic of Indonesia('21.10)

- 인도네시아 최초의 장기저탄소전략(LEDs)
 - '60년까지 국내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탄소중립 추진
 - 크게 세 가지 예상 상황(현행 유지, 일부 감축, 파리협약 목표 준수)을 가정해 정책 수립 중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저탄소 기술 개발,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부품과 같은 신산업 부품의 국산화 등이 담김
- 전력 조달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대 추진
 - 국가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년 23%에서 '50년 31%까지 확대할 계획

〈인도네시아 에너지믹스 계획〉



자료: Peraturan Pemerintah Nomor 79, Tahun 2014

-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에서 발표한 10개년 전력조달계획에 따르면 '19년 대비 신재생에너지 향후 전력 조달 목표가 두 배 가까이 증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자발전사업(Independent Power Provider, IPP) 비중을 확대

〈신재생에너지와 재래식에너지 전력발전 향후 용량 확대 예상치 비교〉

구분	RUPTL 2019~2028				RUPTL 2021~2030			
	확대용량(MW)		비중(%)		확대용량(MW)		비중(%)	
	PLN	IPP	PLN	IPP	PLN	IPP	PLN	IPP
신재생(EBT)	7,907	8,807	47%	53%	9,144	11,779	44%	56%
재래식	14,822	24,859	37%	63%	5,125	14,527	26%	74%

주: 세부 내용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신재생에너지 전력발전 동향' 보고서 참조
 자료: 인도네시아 10개년 전력조달계획(RUPTL) 2021~2030('21.9)

- 이 외에도 디젤 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하거나,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옥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프로젝트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가격 보전 조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법령 제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 옥상 태양광 생산 전력 PLN에 판매 가능 한도가 65%에서 100%로 증가
- 당초 계획은 '23년 4월부터 석탄 화력발전에 대해 탄소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발표 지연 중

▣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주요 인증 제도 및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언급되는 분야는 유통 허가와 관련한 인증이며, 대표적으로 식약청(BPOM) 인증, 기술표준(SNI) 인증, 할랄(Halal) 인증이 있음
- 상기 인증 중 BPOM과 SNI 인증은 법으로 지정한 해당 제품에 한해 필수 유통 인증으로 공통적으로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요구 서류가 많아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 '24년 10월부터 식음료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 정부 규정에 따라 '19년 10월 17일부 정부 차원의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 할랄보장청(BPJPH)의 할랄 인증 유무 여부를 제품에 부착해야 수입 및 유통 가능
 - * 2024.10.17(식품 및 음료 계도기간 종료), 2026.10.17(의약품, 화장품 등 계도기간 종료)
- 수입 대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국산 부품 사용 요건(TKDN)
 - 모든 산업의 평균 국산 사용 비중을 40%대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수립
 - 특히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중점 산업 분야 국산 부품 사용 비중 확대 추진

〈인도네시아의 주요 분야 원자재 수입 비중 조정 목표〉

(단위: %)

분야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속	11.36	10.92	10.44	9.92	9.36
식음료	0.43	0.43	0.43	0.42	0.41
섬유	4.27	4.20	4.13	4.04	3.94
화학, 의약	2.07	2.06	2.04	2.02	1.99
석유 관련	13.06	12.76	12.42	12.04	11.62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옵니버스법) 시행

- '20년 10월 일자리 창출법 제정, '21년 11월 헌법불합치 결정, 일부 내용 수정 후 '23년 3월 국회 통과, 최종 법률로 확정
 - 노무, 건설, 인허가, 환경보호, 무역 등 정부령 45개와 투자사업, 정부조달 등에 대한 대통령령 4개로 이루어짐
 - 옵니버스법이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이정표라면, 옵니버스법 시행령은 이정표 안에 있는 세부 안내표라고 볼 수 있음
- 우리 기업이 참고할 만한 주요 사항은 ①외국인 투자 분야 개방, ②고용환경 개선, ③위험에 기반한 인허가 절차 변경과 OSS 플랫폼으로 인허가 처리 일원화 등임

〈옴니버스법 시행령 주요 내용〉

분야	법령 원문	주요 내용												
투자	Perpres No. 10, Tahun 2021 (투자 분야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20개 투자 금지 업종 → 6개로 대폭 축소 ○ 4가지 업종으로 구분했으며, 투자 우대 분야 신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투자 금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투자자의 투자행위 금지 업종 - 마약, 화학무기,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도박 및 카지노, 산호초·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 중앙정부 필수 수행 </td> </tr> <tr> <td>조건부 투자 가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조건 하 외국인 투자 허용 - 최대 지분을 제한, 특정 허가 추가 취득, 지역 제한 등 - 기존 350개 업종 → 46개 업종으로 대폭 감소 </td> </tr> <tr> <td>중소기업 지정 및 협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업종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불가 - 토지/건물 제외 사업 주체 자본이 100억 루피아 이하 중소기업만 수행 가능 - 외투법인은 최소 100억 루피아 이상 투자해야 하므로 특별경제구역 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 ○ 협업 업종은 중소기업과 협업 필수 - 아직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추후 세척 발표 예정 </td> </tr> <tr> <td>투자 우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신설, 정부 중점 투자 유치 산업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재정/비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Tax allowance(183개), Tax holiday(18개), Investment allowance(44개)로 구분 </td> </tr> <tr> <td>전면 허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보장 </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투자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투자자의 투자행위 금지 업종 - 마약, 화학무기,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도박 및 카지노, 산호초·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 중앙정부 필수 수행 	조건부 투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조건 하 외국인 투자 허용 - 최대 지분을 제한, 특정 허가 추가 취득, 지역 제한 등 - 기존 350개 업종 → 46개 업종으로 대폭 감소 	중소기업 지정 및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업종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불가 - 토지/건물 제외 사업 주체 자본이 100억 루피아 이하 중소기업만 수행 가능 - 외투법인은 최소 100억 루피아 이상 투자해야 하므로 특별경제구역 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 ○ 협업 업종은 중소기업과 협업 필수 - 아직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추후 세척 발표 예정 	투자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신설, 정부 중점 투자 유치 산업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재정/비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Tax allowance(183개), Tax holiday(18개), Investment allowance(44개)로 구분 	전면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보장
		구분	주요 내용											
		투자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투자자의 투자행위 금지 업종 - 마약, 화학무기,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도박 및 카지노, 산호초·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 중앙정부 필수 수행 											
		조건부 투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조건 하 외국인 투자 허용 - 최대 지분을 제한, 특정 허가 추가 취득, 지역 제한 등 - 기존 350개 업종 → 46개 업종으로 대폭 감소 											
		중소기업 지정 및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업종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불가 - 토지/건물 제외 사업 주체 자본이 100억 루피아 이하 중소기업만 수행 가능 - 외투법인은 최소 100억 루피아 이상 투자해야 하므로 특별경제구역 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 ○ 협업 업종은 중소기업과 협업 필수 - 아직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추후 세척 발표 예정 											
투자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신설, 정부 중점 투자 유치 산업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재정/비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Tax allowance(183개), Tax holiday(18개), Investment allowance(44개)로 구분 													
전면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광업과 같이 개별 법령에 명시된 부문은 변동사항 없음 ○ 현지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 사업 부문은 외국인 투자가 전면 개방되었으나 인허가에 난관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 사전 면밀한 검토 필요 														
BKPM Regulation No.4 Tahun 2021 (납입자본 금액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규정 제21조에 따라 납입자본금 상향 조정 - 기존 25억 루피아 → 100억 루피아로 상향 - 업종과 상관없이 규정 시행일('21.6.2) 이후 설립된 모든 외국인 투자법인에 적용 (소급 규정 없음) 													
PP No. 5 Tahun 2021 (사업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관련 모든 절차를 온라인 시스템(Online Single System)으로 일원화 ○ 위험도에 따라 4가지로 인허가 요건을 구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인허가 필요 조건</th> </tr> </thead> <tbody> <tr> <td>저위험도</td> <td>○ 사업고유번호(NIB) 발급으로 취득 절차 마무리</td> </tr> <tr> <td>중저위험도</td> <td>○ NIB, 사업자 진술이 기재된 표준인증서</td> </tr> <tr> <td>중고위험도</td> <td>○ NIB,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표준인증서 * 표준인증서 발급 시 사업활동기준 준수 여부 확인</td> </tr> <tr> <td>고위험도</td> <td>○ NIB,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사업허가</td> </tr> </tbody> </table>	구분	인허가 필요 조건	저위험도	○ 사업고유번호(NIB) 발급으로 취득 절차 마무리	중저위험도	○ NIB, 사업자 진술이 기재된 표준인증서	중고위험도	○ NIB,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표준인증서 * 표준인증서 발급 시 사업활동기준 준수 여부 확인	고위험도	○ NIB,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사업허가			
구분	인허가 필요 조건													
저위험도	○ 사업고유번호(NIB) 발급으로 취득 절차 마무리													
중저위험도	○ NIB, 사업자 진술이 기재된 표준인증서													
중고위험도	○ NIB,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표준인증서 * 표준인증서 발급 시 사업활동기준 준수 여부 확인													
고위험도	○ NIB,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사업허가													

분야	법령 원문	주요 내용
노동	PP No. 34 Tahun 2021 (외국인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력 고용허가 면제 대상 범위 일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상황에서 생산장비 유지 및 보수, 교육, 스타트업, 비즈니스 방문, 일정 기간 연구활동 등 ○ 외국인 인력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무자로 분류되는 것에는 변동 없음
	PP No. 35 Tahun 2021 (기간제, 아웃소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보상금 지급 의무 신설 ○ 근로계약 허용 기간에 관한 규정 방식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년 기간 내 계약 체결 및 연장 가능 ○ 근로계약 허용 업무에 관한 내용 실질적 변경 없음 ○ 최대 초과 근무 허용 시간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4시간(주 18시간)으로 확대 ○ 장기 근속 직원 대상 주어진 장기근속휴가 폐지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시 일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에게만 지급했던 퇴직보상금 지급 의무 신설 * 퇴직보상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 근로계약 해지 절차에 통지 절차 추가 - 근로계약 해지 사유 일부 변경 ○ 아웃소싱 허용 업무 범위에서 정부가 정한 '일부 업무'에 대해서 인력 파견 허용
	PP No. 36 Tahun 2021 (임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최저임금 기준 폐지 ○ 주별 최저임금의 결정 권한 주지사에게 일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계산법을 활용해 연간 최저임금 결정 - (적용변수)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에 '특정지수' 추가 - 특정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공식과 다른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마련
	PP No. 37 Tahun 2021 (실업보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 해지 시 실업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제공하는 실업보험(Job Loss Security) 제도 신설

주: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령 원본과 출처를 참고 바람
 자료: 법무법인 지평 뉴스레터, 2021 인도네시아 신노동법(노사발전재단), 인도네시아 투자 개방과 허용 범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인니상공회의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자료

▣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로드맵 2021~2024
 - 디지털 전환을 위한 10개 우선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①인프라 구축, ②전자 행정 구축, ③디지털 인재 육성, ④디지털 사회 개발 등을 추진
 - * 교통, 관광, 무역, 금융 서비스, 미디어·엔터, 농·어업, 스마트시티, 교육, 헬스케어, 산업
 - 디지털 전환의 문제로 지적받는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육지와 바다에 광섬유 케이블 연결을 통해 12,548곳 산간지역 디지털 전환 지원
 -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역에 대한 인터넷 접근성 증대를 위해 스타링크 도입 추진 중
 - 로드맵 구체화를 위해 통신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과 협업 추진

- 인도네시아 지불 결제 시스템 청사진 2025(Indonesia Payment System Blueprint 2025)
 - '19년 5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결제 시스템 2025 비전 선포
 - ①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표준화를 통한 디지털 오픈뱅킹 구축, ②소매 결제 시스템 개발, ③도매 결제 및 금융 시장 인프라 구축, ④데이터 통합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국가 데이터 개발, ⑤결제 관련 규제, 관리 감독, 인허가 및 보고 체계 구축 비전으로 구성

〈인도네시아 지불 결제 시스템 2025 청사진 주요 내용〉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 (ESG) 대부분의 산업에서 ESG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법으로 명시한 인도네시아, 친환경·탄소중립 기조 확대
 - 인도네시아는 '07년 유한회사에 관한 법률 40호로 기업의 CSR 활동 의무화
 - 조코위 대통령은 '21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탄소중립 의지를 표방
-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ESG 준수 요구
 - 현지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토크오피디아(Tokopedia)를 대상으로 '30년까지 재생 에너지 100% 사용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발송하는 등 소비자들이 기업들에게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토코피디아 대상 ESG 요청 운동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Kpop4Planet(전 세계 K-팝 팬들이 모여 결성) ○ 요청 내용: '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 파리기후변화협정 등 국제 기준 준수 - 회사 운영 중 발생한 탄소발자국을 대중에게 공개 ○ 특이사항: 토코피디아의 홍보 모델이 K-팝 대표주자인 BTS와 블랙핑크이기 때문에 토코피디아를 선택
---	--

자료: <https://tokopedia4bumi.kpop4planet.com/>

-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ESG 경영 적극 실천 중
 -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 석유사인 페르타미나(Pertamina)는 ESG 실천을 위해 '25년까지 모든 공용차를 전기차로 전환 예정
 - Goto 그룹은 '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쓰레기 배출 제로, 사회적 장벽 제로 등 세 가지 분야에서 ESG를 실현할 계획 추진
 - CJ제일제당은 '22년 9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 인니 공장의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해 탄소 배출 저감 의지 표명
 - * 해당 증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서만 발급되는 인증서

- 자본시장도 ESG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
 -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19년 4월 UN 주도 지속가능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ustainable Stock Exchange) 가입
 - 기업별로 ESG 위험도를 평가하여 점수를 매긴 ESG 스코어 제도 시행 중

〈ESG 스코어 기준〉

위험도 스코어	분류	내용
0~10	매우 낮음(Negligible)	매우 낮은 ESG 위험도
10~20	낮음(Low)	낮은 ESG 위험도
20~30	중간(Medium)	중간 수준의 ESG 위험도
30~40	높음(High)	높은 ESG 위험도
>40	심각(Severe)	심각한 ESG 위험도

자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 '23년 9월 기준 IDX 상장기업 중 80개는 ESG 경영 실천을 약속하고 시행 중

〈ESG 경영 실천 주요 기업 목록〉

연번	기업명	사업 분야	ESG 스코어
1	Erajaya Swasembada	소매	12.67
2	Elang Mahkota Teknologi	IT	14.9
3	Bumi Serpong Damai	부동산	15.9
4	Jasa Marga	교통 인프라	15.15
5	Surya Citra Media	미디어	15.35
6	Mitra Pinasthika Mustika	소매	15.9
7	Chandra Asri Petrochemical	석유화학	16.6
8	Media Nusantara Citra	미디어	17.7
9	Global Mediacom	다중 부문	18.14
10	Unilever Indonesia	FMGC	18.8

자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IDX Carbon) 출범
 - '23년 9월 26일부터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를 통해 인도네시아 내 탄소 거래 시작
 - '금융 부문의 발전과 강화에 관한 법률(UUP2SK)'에 따라 탄소 단위는 유가증권 (Securities, Efek)으로 구분되며, 탄소 단위는 다시 PTBAE-PU와 SPE-GRK로 나뉨 (세부 내용 관련 해외시장뉴스)
 - * Efek 정의 : 소유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부여하는 실물 및 디지털 형태나 다른 형태의 증권 또는 투자 계약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 내 탄소 단위 구분〉

구분	내용	비고
PTBAE-PU (Petunjuk Teknis Batas Atas Emisi Pelaku Usaha)	정부가 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 결정 및/ 또는 각 사업체에 대한 특정 준수 기간 내 배출 할당량 결정	동일 분야 국내 수준에서 타 PTBAE-PU 보유자와만 거래 가능
SPE-GRK(Sertifikat Pengurangan Emisi Gas Rumah Kaca)	측정, 보고 및 검증을 거친 비즈니스 및/ 또는 활동에 의한 배출량 감축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등록번호 및/또는 코드 형태로 SRN PPI에 기록	분야 간 거래이며, 해외에서도 거래 가능

자료: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IDX Carbon)

- 인도네시아 탄소 거래는 IDX Carbon 내에서 정규시장, 협상시장, 경매, 마켓플레이스 등 네 가지 시장에서 거래 가능

〈인도네시아 탄소 거래 시장 종류〉

종류	내용
정규시장 (Pasar Reguler)	판매자와 구매자가 실시간으로 매매 관심을 표현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연속 경매 메커니즘의 시장
협상시장 (Pasar Negosiasi)	이전에 합의된 거래가 투명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IDX Carbon 시스템을 통해 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장
경매 (Pasar Lelang)	정부 또는 배출 감축 프로젝트 소유자는 탄소 거래 운영사의 경매 메커니즘을 통해 탄소 단위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
마켓플레이스 (Marketplace)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 소유자는 미리 정해진 가격에 탄소 단위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자료: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IDX Carbon)

- 인도네시아 탄소 거래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과 탄소 배출 제로 달성에 큰 기대 중
* 탄소 상쇄(Offset)를 원하는 외국 기업 유치 연간 150억 달러 규모 거래 달성 기대
- 우리 기업도 인도네시아 투자기업으로 탄소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나, '23년 10월 기준 인도네시아 내에서 획득한 탄소 크레딧은 국외로 이전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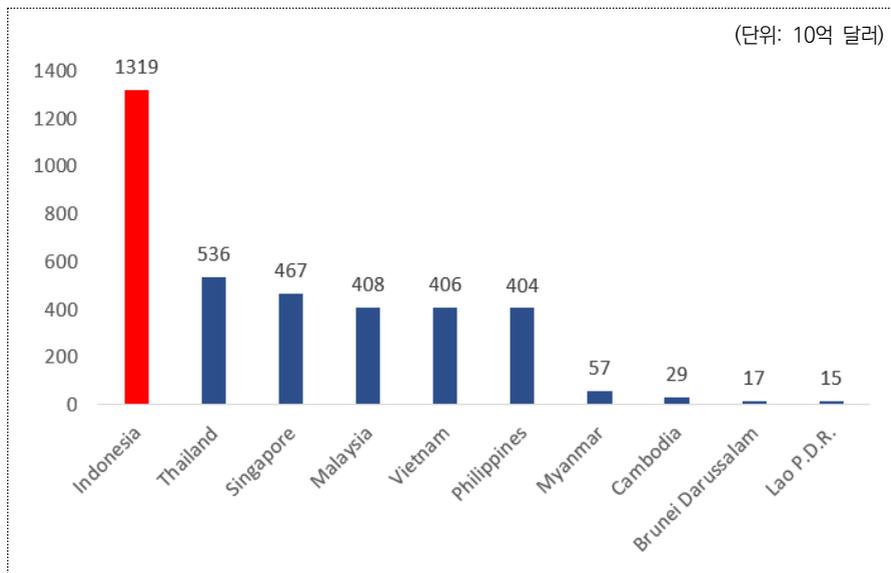
- ※ ASEAN 최대 성장 잠재력을 한류 친화 시장으로, 다양한 기회와 위협이 공존
-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가졌고 한류를 가장 사랑하는 매력적인 시장
 - 하지만 정부의 수입 대체 정책과 다양한 규제가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

가. 시장 특성

▣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동남아 최대 소비시장

-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ASEAN 최대 경제 규모 보유
 -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는 총 2억 8,000여만 명으로 세계 4위 규모, 그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70.7%에 육박해 인구 보너스 최고 구간을 지나는 중
 - '21년 기준, 인도네시아 명목GDP는 1조 3,200억 달러 수준으로 ASEAN 국가 중 최대, 전 세계 16위를 기록(한국은 13위)

〈2022년 아세안 국가 명목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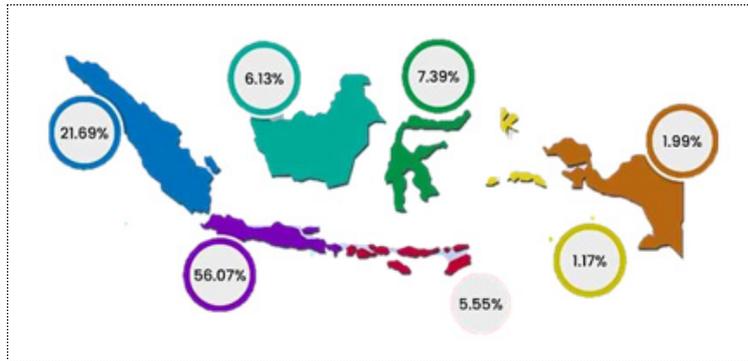


자료: IMF(2022)

▣ 지역별 편차가 크고, 1인당 소득 수준이 낮아 타깃 맞춤형 마케팅 필요

- 자바(Jawa)섬 중심의 상권
 - 인도네시아를 이루고 있는 다섯 개의 큰 섬 중 자바섬(제1·2의 도시인 자카르타, 수라바야 위치)에 인구의 56.07%인 약 1억 5,000만 명이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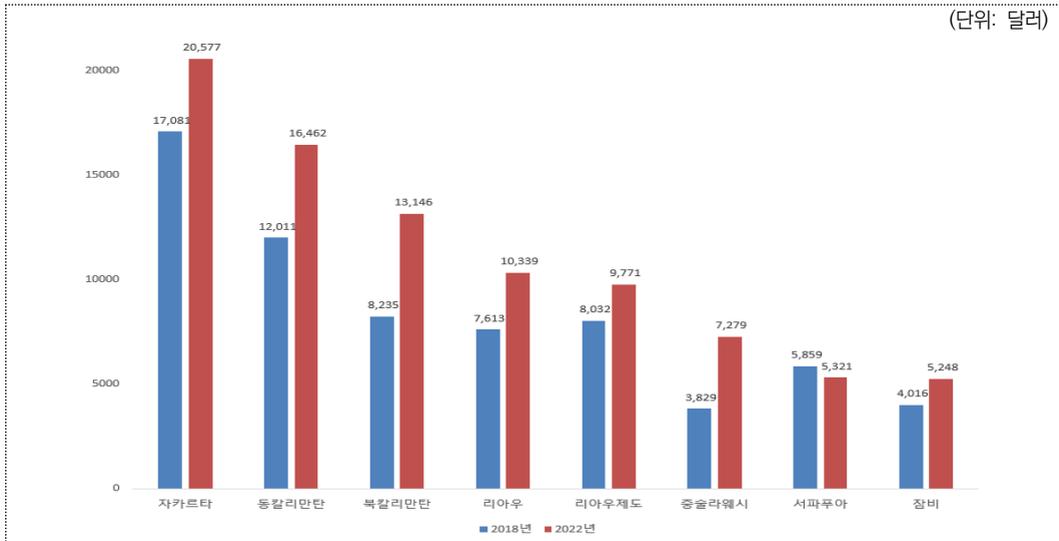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지역별 인구 분포〉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2020 인구조사 결과)

- 자바섬의 '23년 2분기 GDP는 인도네시아 전체의 57.3%를 차지하는 등 자바섬을 중심*으로 경제가 형성돼 있으며 대부분의 국제 거래는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이뤄짐
 - * 수마트라(21.9%), 칼리만탄(8.3%), 수라웨시(7.1%) 등 차지(인도네시아 통계청('23.8))
- 소득계층의 양극화
 - 인도네시아의 실질적 중산층 규모는 8,000만 명 내외 수준이며, 중산층 이하의 소득계층은 중·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형편임
 - 인도네시아의 경제 중심지인 자바섬 내에서도 1인당 GDP 수준은 천차만별이며, 지역별로 1인당 구매력 차이가 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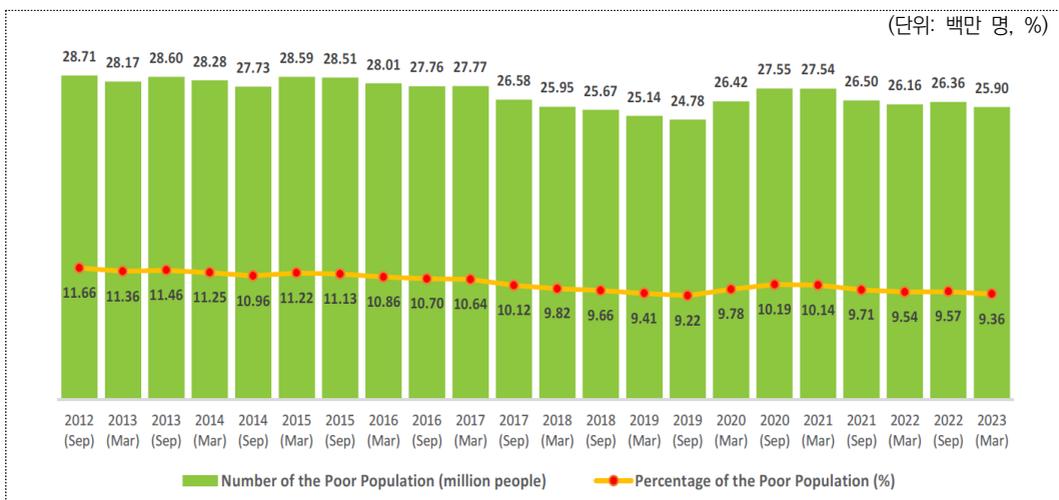
〈2018년(좌) 및 2022년(우) 주별 1인당 GDP 수준〉



주: 통계청 자료는 루피아로 표기되어 1달러=14,500루피아 일괄 적용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 **높지 않은 1인당 GDP 수준과 다소 높은 빈곤층 비율**
 - 인도네시아 1인당 GDP는 약 4,800달러로 베트남과 비슷하며 말레이시아, 태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 '22년 기준, 말레이시아(\$12,360), 태국(\$7,650), 베트남(\$4,090), 필리핀(\$3,620) (자료: IMF)
 -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에 빈곤층이 증가해왔으며, 최근 다소 둔화 추세이나 여전히 9%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빈곤인구 수 및 빈곤율 추이〉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 역동적으로 발전 중인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생태계

- 아세안 유니콘 스타트업들의 주요 활동무대
 - 인도네시아에는 7개의 유니콘과 1개의 데카콘이 있으며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은 2위
 - 전자상거래, 핀테크, 물류,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 탄생 중

〈인도네시아 데카콘, 유니콘 스타트업 현황(23.9)〉

기업명	주요 분야	주요 투자자
제이엔티익스프레스 (J&T Express)	물류, 교통	Hillhouse Capital, Boy Capital, Sequoia Capital
트레블로카 (Traveloka)	여행	Global Founders Capital, East Ventures, Expedia
아쿠라쿠(Akulaku)	핀테크	Lend East, Siam Commercial Bank (SCB) Group
이피셔리(eFishery)	아쿠아컬처 테크	Aqua-Spark, Wavemaker Partners, Peak XV Partners
다나(Dana)	핀테크	Sinar Mas, Lazada
젠딧(Xendit)	핀테크	Accel, Y Combinator, Amasia
아자입(Ajaib)	핀테크	Softbank, Horizon Ventures
코피 끄낭안 (Kopi Kenangan)	커피 체인점	Alpha Wave Global, Horizon Ventures, Falcon Edge India, KUNLUN, Sequoia Capital India

자료: CB Insights

- 수도 자카르타의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는 710억 달러 규모로 스타트업 10대 도시 중 난징(1,270억 달러) 및 디트로이트(1,030억 달러)의 뒤를 이은 3위를 기록하며 높은 성장 가능성 입증*

* Th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3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환경 분석〉

주요 장점 및 발전 원동력	주요 단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인터넷 경제 규모 2. 현지 투자 해외 자본 3. 건별 평균 투자 액수 4. 고투(GoTo)와 같은 초대형 스타트업의 출현 및 관련 산업 생태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타트업 산업과 관련한 규제가 많음 2. 현지 인력 고용에 대한 유연성이 낮은 등 '사업 복잡성 (Business Complexity)'이 큼 2. 인터넷 관련 사업을 수행할 고급 인력 부족 4. 대중교통의 부재로 낙후된 교통 및 물류 시스템 5.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저항

자료: 「인도네시아 콘텐츠 산업 동향」(2021년 1호), 한국콘텐츠진흥원

▣ 인도네시아 진출 시 필수 고려요소, 할랄 산업 성장

- 전 세계 최대 할랄 시장 규모와 성장 잠재력 보유
 - 인도네시아 할랄산업 지수는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 이은 4위를 기록함
 - *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 2022
 - '20년 금융 분야를 제외한 인도네시아 할랄 소비시장 규모는 1,840억 달러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25년까지 연평균 13% 성장해 약 3,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20년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분야	규모	연평균 성장률 전망(2020~2025)
식음료	135.0	14.7%
패션	15.6	8.3%
제약	5.13	5.8%
화장품	4.19	12.6%
미디어	20.7	9.0%
관광	3.4	19.0%
이슬람 금융(자산 기준)	120.0	-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Indonesia Halal Report 2021~2022)

- '21년 할랄산업 육성을 위해 종교부 산하 인증 총괄 할랄보장청(BPJPH) 신설
 - 민간기구인 이슬람단체 울라마협의회(MUI)가 전담하던 할랄 업무가 정부기관인 BPJPH로 이관되고 MUI는 검사와 심의만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 조정

〈할랄보장청(BPJPH) 기관 개요〉

기관명	내용
할랄보장청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 접수부터 인증서 교부까지 전 과정 관여 ▶ 할랄 여부 검토는 MUI에서 진행

자료: 할랄 제품 보증 시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2021년 39호, BPJPH 홈페이지 등

- 할랄 인증 시스템의 표준화 및 중앙화를 통해 할랄 소비자의 신뢰 증진 및 권익 보호를 달성하고, 시장에서 할랄 제품에 대한 투명성 및 명확성 확보

- '22년 2월에는 새로운 할랄 라벨, 할랄 시스템 고도화 등에 대한 할랄보장청 규정 2022년 제40호 발표
 - 이번 법령을 통해 새롭게 고안된 할랄 로고는 '22년 3월부터 발급되는 할랄 인증에 사용
 - * 기존 로고는 '26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기가 도래하기 전 교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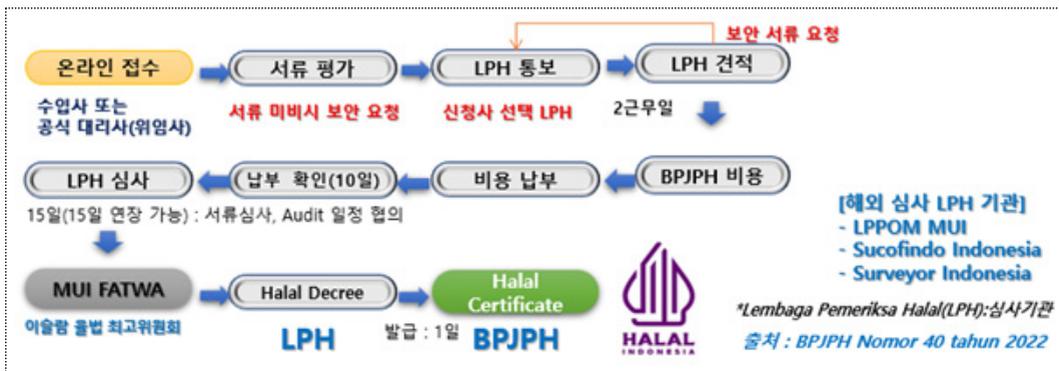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신규 할랄 인증 로고〉



자료: PT. Green Nature Farm, BPJPH Nomor 40 Tahun 2022

- 할랄보장청에서 발급하는 할랄 인증을 희망하는 해외 기업들의 인증 비용도 이번 법령을 통해 명문화되며, 일괄적으로 1,250만 루피아(약 110만 원)의 비용을 할랄보장청에 납부 필요
 - * 해당 비용은 할랄보장청의 인증서 발급 비용만을 의미하며, 할랄 심사기관의 인력 출장비 등은 별도 (PT. Green Nature Farm)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프로세스〉



자료: PT. Green Nature Farm, BPJPH Nomor 40 Tahun 2022

- 무슬림 소비자들은 할랄에 대한 관심이 높아 향후 인니 진출에 있어 중요
 - 무슬림에 있어 금기시(하람, Haram)되는 돼지 원료가 포함된 의약품,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에는 '돼지 원료가 포함' 표시가 필수 부착

〈돼지 원료가 함유된 의약품/식품 표기 방법〉



자료: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PT. Green Nature Farm

▣ 2023년 주목받은 소비 트렌드, 할랄 제품

- 글로벌 할랄 시장의 플레이메이커로 등극한 인도네시아
 -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제조·가공·유통이 되는가를 의미, 식품·화장품·의약품뿐만 아니라 패션 제품 및 금융·서비스 등에도 적용
 -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할랄 시장, 2억 2,960만 명의 무슬림 인구가 연간 1,840억 달러 규모의 할랄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함
 - OIC는 인도네시아 내수 할랄 시장이 '25년까지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 지난 2년간 주요 글로벌 할랄 관련 M&A, VC, PE 71건 중 20건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 (OIC 국가 중 2위)
 - * 이슬람 협력기구(OIC) : 세계 57개국 이슬람 국가가 결성한 국제 협력체
- 국가 주도의 할랄산업 육성 정책, 식음료·화장품·의약품에 할랄/비할랄 여부 표기
 - '20년, 인도네시아 최고 권위 이슬람단체 MUI는 인도네시아 할랄경제의 7대 중점 육성 산업으로 식품, 패션, 의약, 화장품, 미디어, 관광, 금융을 선정
 - '24년부터 모든 식음료 상품, '26년부터는 화장품·의약품 할랄 인증 의무 표기, 할랄 제품에 대한 소비 심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할랄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한 성공 사례, 할랄 인증에 대한 소비 민감도 확인
 - (화장품) 현지 할랄 화장품으로 유명한 'Wardah'는 자연 친화적이며 동물성 성분(태반, 콜라겐, AHA 등)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으로 '21년 인도네시아 대표 온라인 쇼핑몰(쇼피, 토코피디아)의 화장품 시장점유율 2위 차지
 - (의약품) 대웅인피온(대웅제약 인도네시아 법인), 빈혈 치료제 에포디온(EPO)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후발 주자이나, 유사 제품 중 유일하게 할랄 인증을 선제적으로 취득, '22년 기준 인도네시아 시장점유율 60%로 1위
 - (식품) 삼양 불닭볶음면은 '17년 선제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불닭 브랜드 3종에 대해 할랄 인증 취득, 타 수입 라면과 차별성 확보

〈對인도네시아 주요 할랄 인증 취득 수출품〉

제품	기업명	현황
 <p>요꼬끼</p>	영풍(제조/한국) PT. Indoguna Utama (수입유통/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 MUI 최고 등급인 A등급 취득, 인도네시아 성공적인 수출 ▶ 매운맛, 짜장맛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소비자 공략 ▶ 온/오프라인 모든 플랫폼에서 쉽게 구입 가능
밀코사이드76(천연 계면활성제) -바디워시, 샴푸, 주방세제 원료	LG생활건강(제조/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MUI 할랄 인증 취득, 인증 효과로 전년 대비 매출액 12% 증가한 388억 원 기록 ▶ 밀코사이드 원료를 동남아 전역에 B2B 직판하는 형태로 판매, 동남아 할랄 시장을 공략하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이 주 고객

자료: Tokopedia(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BPOM(인도네시아 식약청)

나. 교역

▣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대외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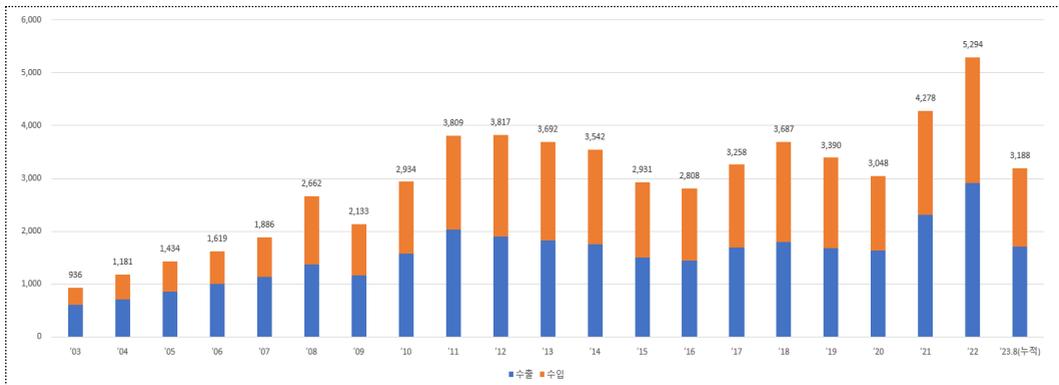
- 지난 20년간 연평균 9.4% 성장으로 세계 경제 입지 확대 추세
 - 글로벌 금융위기('08), 역오일쇼크('14), 코로나19('20) 등 세계 경제 위기마다 회복세 전환에 성공하며 글로벌 무역에서의 입지를 점진적으로 확대 중
 - * 인니의 무역 규모 세계 순위('03 → '22): (교역) 33위 → 28위, (수출) 28위 → 25위, (수입) 38위 → 25위
 - 2010년대에 무역적자 등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적을 보였으나, 최근 원자재가 상승과 광물 보유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교역 규모 확대 및 수지 개선에 성공

〈인도네시아의 대외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수출	611	716	857	1,008	1,141	1,370	1,165	1,578	2,035	1,900
수입	326	465	577	611	745	1,292	968	1,357	1,774	1,917
교역액	936	1,181	1,434	1,619	1,886	2,662	2,133	2,934	3,809	3,817
수지	285	251	280	397	396	78	197	221	261	△17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8 (누적)
수출	1,826	1,760	1,504	1,451	1,688	1,800	1,677	1,632	2,316	2,920	1,716
수입	1,866	1,782	1,427	1,357	1,570	1,887	1,713	1,416	1,962	2,374	1,472
교역액	3,692	3,542	2,931	2,808	3,258	3,687	3,390	3,048	4,278	5,294	3,188
수지	△41	△22	77	95	118	△87	△36	216	354	545	244



주: 데이터 숫자 레이블은 교역액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주요 교역 대상국은 7개 국가 내에서 움직이나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
 - 지난 10년간 상위 7개 국가 구성의 변동은 없었으며 '13년부터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한 뒤 인도네시아 대외교역 전체의 25%를 차지
 - 한국은 '12년에 인도네시아의 4대 교역국에 등극하였으나, 2010년대 중반 양국 교역액이 130억 달러대로 감소한 뒤 증가세 유지
 -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교역액이 줄었으나, 현재 교역액은 반등하여 7대 교역 대상국에 위치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 대상국〉

(단위: 억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누적)
1위	중국(727)	중국(729)	중국(714)	중국(1,100)	중국(1,336)	중국(831)
2위	일본(374)	일본(317)	미국(272)	미국(370)	일본(420)	일본(255)
3위	싱가포르(344)	싱가포르(305)	일본(243)	일본(325)	미국(398)	미국(233)
4위	미국(286)	미국(271)	싱가포르(230)	싱가포르(271)	싱가포르(338)	싱가포르(198)
5위	한국(186)	말레이시아(166)	말레이시아(150)	말레이시아(214)	말레이시아(279)	인도(181)
6위	말레이시아(179)	태국(157)	한국(134)	한국(184)	한국(245)	말레이시아(156)
7위	태국(178)	한국(157)	태국(116)	태국(162)	태국(192)	한국(140)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출 동향

- '22년 수출 2,920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출액 경신 중
 - 광물성 연료 에너지(HS 27)와 동식물성 유지(HS 15)가 전체 수출의 1/3을 차지
 - 철강(HS 72) 수출 규모가 급성장하며 인도네시아의 3대 수출 품목으로 부상
 - * 인니 철강 수출 비중 및 순위 : ('18) 3.2%, 7위 → ('22) 9.5%, 3위
 - 이외에도 '22년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광물(광석(HS 26), 구리·니켈·알루미늄 제품(HS 74~76)) 수출액 증가가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출 성장에 기여
 - * 인니 HS 26, 74, 75, 76 對세계 수출액(억 달러) : ('20) 65 → ('21) 115 → ('22) 200
- '23년 8월 누적 수출액은 1,71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
 - 최근 글로벌 석탄 및 팜오일 가격 하락으로 HS 27 및 HS 15 수출액 급감
 - ** '23년 2분기 글로벌 석탄 및 팜오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7% 및 42.0% 하락 (Bloomberg('23.9))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누적)
전체	1,802 (7.5)	1,670 (△7.3)	1,633 (△2.2)	2,315 (41.8)	2,920 (26.1)	1,716 (△11.8)
연료 에너지	420 (14.1)	347 (△17.3)	256 (△26.3)	451 (76.4)	710 (57.4)	710 (△11.5)
동식물성 유지	203 (△11.4)	175 (△13.8)	207 (18.1)	328 (58.4)	352 (7.2)	352 (△17.6)
철강	58 (71.7)	74 (28.9)	108 (46.4)	209 (93.1)	278 (32.8)	278 (△7.2)
전자기기	89 (4.6)	83 (△5.7)	92 (10.7)	118 (27.5)	146 (23.6)	146 (4.7)
자동차·부품	76 (10.5)	8.1 (7.9)	66 (△19.0)	86 (30.8)	110 (27.1)	110 (6.1)

주: HS 코드 2단위 기준, 누적 금액 상위 5개 품목 기재
 자료: S&P Global Trade Atlas

- 3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 일본, 미국 순
 - 중국, 일본, 미국 3개국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수출 의존도는 40% 수준이며,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지속 증가하여 현재 20% 이상을 차지
 - * '18~'22년 인니의 對중국 수출 의존도(%) : 15.1 → 16.7 → 19.5 → 23.2 → 22.6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 억 달러)

순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누적)
1위	중국(271)	중국(280)	중국(318)	중국(538)	중국(659)	중국(418)
2위	일본(195)	미국(178)	미국(186)	미국(258)	미국(282)	미국(159)
3위	미국(184)	일본(160)	일본(137)	일본(179)	일본(248)	일본(143)
4위	인도(138)	싱가포르(129)	싱가포르(107)	인도(133)	인도(233)	인도(131)
5위	싱가포르(129)	인도(118)	인도(104)	말레이시아(120)	말레이시아(155)	말레이시아(86)
6위	한국(95)	말레이시아(89)	말레이시아(81)	싱가포르(116)	싱가포르(144)	싱가포르(84)
7위	말레이시아(94)	한국(72)	한국(65)	한국(90)	필리핀(129)	필리핀(74)
8위	필리핀(68)	필리핀(68)	필리핀(59)	필리핀(86)	한국(128)	한국(67)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입 동향

- '22년 수입 2,374억 달러 기록하며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입액 경신 중
 - 팬데믹 이후 회복세 전환과 교역 확대에 성공하며 5년 평균 성장률 8.6% 기록
 - 지난 5년간 수입 상위 5개 품목 구성은 변동이 없었으며 상위 5개 품목이 인도네시아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
 - * '18~'22년 상위 5개 품목의 전체 수입액 비중(%) : 53 → 52 → 50 → 51 → 54
 - 수입 최대 품목인 광물성 연료 에너지(HS 27)는 국제 유가 변동과 유사 추세
 - * '18~'22년 두바이유 평균가(달러/배럴, 석유공사) : 69.66 → 63.53 → 42.29 → 69.41 → 96.41
- '23년 8월 누적 수입액은 1,47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2년부터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품의 35%를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주로 중간재인 철강, 플라스틱 제품 등이 포함되어 해당 분야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0% 및 20.9% 감소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전년 대비 %,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누적)
전체	1,879 (19.7)	1,704 (△9.3)	1,416 (△16.9)	1,962 (38.5)	2,374 (21.0)	1,472 (△7.8)
연료 에너지	315 (23.7)	235 (△25.4)	158 (△32.8)	288 (82.8)	449 (55.7)	710 (△17.3)
기계·보일러	271 (24.3)	268 (△1.1)	218 (△18.5)	258 (18.5)	316 (22.2)	352 (2.7)
전자기기	213 (19.0)	196 (△8.2)	191 (△2.6)	223 (17.1)	264 (18.1)	278 (△0.9)
철강	102 (27.9)	104 (1.7)	69 (△34.0)	120 (74.4)	139 (16.5)	146 (△20.0)
플라스틱·제품	92 (18.7)	87 (△5.2)	72 (△17.8)	102 (42.4)	111 (9.2)	110 (△20.9)

주: HS 코드 2단위 기준, 누적 금액 상위 5개 품목 기재
 자료: S&P Global Trade Atlas

- 주 수입 대상국은 중국, 싱가포르, 일본이나 최근 對말레이시아 수입 급증
 -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입 중 40% 이상이 중국, 싱가포르, 일본 3개국으로부터 수입되나 그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
 - * '18~'22년 인니의 對중·싱·일 수입 의존도(%) : 45.0 → 45.6 → 44.3 → 44.0 → 43.9
 - 對말레이시아 수입 규모는 연료 에너지 성장세에 힘입어 '22년 인도네시아의 수입 대상국 4위로 등극하였으나,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세로 '23년 8월 기준 7위 기록 중
 - * 최근 3개년 對말련 수입 강세 품목(CAGR %) : 연료 에너지(44), 곡물(25), 조제사료(17)
 - 팬데믹 이후 인도네시아의 對미국 수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며(최근 3년 CAGR 7.9%), '23년 8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수입 대상국 4위 기록 중
 - * 최근 3개년 對미국 수입 강세 품목(CAGR %) : 연료 에너지(27), 유기화합물(27), 자동차·부품(13)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억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누적)
1위	중국(455)	중국(449)	중국(396)	중국(562)	중국(677)	중국(413)
2위	싱가포르(214)	싱가포르(176)	싱가포르(123)	싱가포르(155)	싱가포르(194)	싱가포르(114)
3위	일본(180)	일본(157)	일본(107)	일본(146)	일본(172)	일본(112)
4위	태국(110)	태국(95)	미국(86)	미국(112)	말레이시아(125)	미국(77)
5위	미국(102)	미국(93)	말레이시아(69)	말레이시아(95)	한국(117)	한국(73)
6위	한국(91)	한국(84)	한국(68)	한국(94)	미국(116)	태국(70)
7위	말레이시아(86)	말레이시아(78)	태국(65)	호주(94)	태국(110)	말레이시아(69)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교역 주요 애로사항인 주요 비관세 장벽 및 수입 규제

- 인니 정부의 자국 역량 강화를 위한 수입 대체 기조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수입 규제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이익이 보장되는 통상 관계만을 이어갈 계획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며, 국산 부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 * 조코위 대통령, 건설업 국산 부품 사용 독려('21.3)
- 무역구제 조치 동향('23년 6월 기준)
 - 인도네시아 對세계 수입 규제는 총 6건(세이프가드 5건, 반덤핑 1건)
 - 주로 섬유·의류(2건), 철강·금속(1건)과 플라스틱·고무(1건), 기타(2건) 등 내수 생산이 가능하거나 육성 중인 산업 보호에 대한 조치

〈인도네시아 무역구제 조치 현황('23.6)〉

품목	규제 유형	반덤핑		세이프가드		계	
		전체	(조사 중)	전체	(조사 중)	전체	(조사 중)
섬유/의류		0	0	2	0	2	0
철강/금속		1	0	0	0	1	0
플라스틱/고무		0	0	1	0	1	0
기타		0	0	2	2	2	2
총계		1	0	5	2	6	2

자료: WTO 통계, 인도네시아 정부 관보통계,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정리

- 인도네시아 진출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식약청(BPOM) 인증, 기술표준(SNI) 인증, 보건부 의료기기(ALKES) 인허가
 - 인증이 없는 경우 수입 통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진출 시 필수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비관세 장벽
 - 해외 인증 준비 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다수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전 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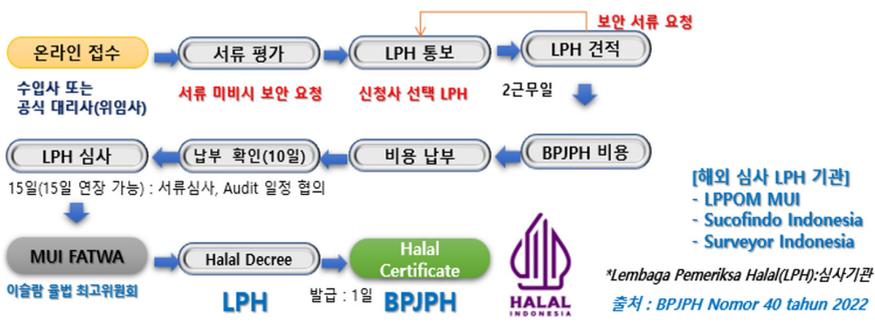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주요 인증 세부 내용〉

인증명	SNI	BPOM	ALKES/PKRT
인증마크			
허가기관	Bureau of Standard Nasional (BSN, 인니 국가표준기구)	Badan POM (BPOM, 인니 식약청)	Kementerian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인도네시아 보건부)
성격	의무	의무	의무
주요 적용 제품	철강, 전자기기, 공산품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ALKES) 건강보조기구(PKRT)
신청 주체	제품 수입업체	제품 유형별 유통 허가(PSB)를 보유한 제품 수입업체	의료기기 유통 허가(IPAK)를 보유한 제품 수입업체
획득 소요기간	2개월~1년	2개월~2년	2개월~1년
획득 소요비용 (제품당)	USD 10,000~20,000 (실사비용 포함)	USD 7,000~5,000	USD 1,000~5,000
유효기간	4년	3년(화장품), 5년(일반)	5년
타국 인증 상호 인정 여부	미인정	미인정	미인정

주: 대행업체 포함 기준이며, 품목별로 기간 및 비용 상이
 자료: 인도네시아 보건부, 식약청, 국가표준기구 등

- '24년부터 의무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할랄 인증
 - '19년 10월부 신할랄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이 의무화 되었지만 담당 기관인 할랄보장청(BPJP) 시스템 준비와 세부 시행 규칙 마련 위해 '34년까지 품목별로 할랄 인증 의무화 계도기간 설정
 - '21년 정부 규정(PP No. 39, 2021)을 통해 할랄 인증 제도에 대한 혼선이 해소되었고, 특히 식음료에 대한 계도기간은 '24년 10월 종료, 사전 대비 필수

〈할랄 인증 세부 정보〉

인증명	할랄 인증																						
인증마크	  <p>[기존 로고(좌), 신규 로고(우, '22.3.1부터 사용)]</p>																						
인증기관	Badan Pentelenggara Jsminan Produk Hala(BPJPH, 할랄보장청)																						
성격	의무(할랄 여부 표기)																						
주요 적용 제품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 물품 전반																						
	<table border="1"> <thead> <tr> <th>제품 유형</th> <th>계도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식품(식음료)</td> <td>2019.10.17~2024.10.17</td> </tr> <tr> <td>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td> <td>2021.10.17~2026.10.17</td> </tr> <tr> <td>의약외품(OTC)</td> <td>2021.10.17~2029.10.17</td> </tr> <tr> <td>향정신성 의약품 제외 의약품</td> <td>2021.10.17~2034.10.17</td> </tr> <tr> <td>화장품, 화학, 유전공학제품</td> <td>2021.10.17~2026.10.17</td> </tr> <tr> <td>의류, 헤드기어, 액세서리</td> <td>2021.10.17~2026.10.17</td> </tr> <tr> <td>가정용품, 이슬람 종교의식도구, 문구류, 사무용품</td> <td>2021.10.17~2026.10.17</td> </tr> <tr> <td>의료기기(A등급)</td> <td>2021.10.17~2026.10.17</td> </tr> <tr> <td>의료기기(B등급)</td> <td>2021.10.17~2029.10.17</td> </tr> <tr> <td>의료기기(C등급)</td> <td>2021.10.17~2034.10.17</td> </tr> </tbody> </table>	제품 유형	계도기간	식품(식음료)	2019.10.17~2024.10.17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2021.10.17~2026.10.17	의약외품(OTC)	2021.10.17~2029.10.17	향정신성 의약품 제외 의약품	2021.10.17~2034.10.17	화장품, 화학, 유전공학제품	2021.10.17~2026.10.17	의류, 헤드기어, 액세서리	2021.10.17~2026.10.17	가정용품, 이슬람 종교의식도구, 문구류, 사무용품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A등급)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B등급)	2021.10.17~2029.10.17	의료기기(C등급)	2021.10.17~2034.10.17
	제품 유형	계도기간																					
	식품(식음료)	2019.10.17~2024.10.17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2021.10.17~2026.10.17																					
	의약외품(OTC)	2021.10.17~2029.10.17																					
	향정신성 의약품 제외 의약품	2021.10.17~2034.10.17																					
	화장품, 화학, 유전공학제품	2021.10.17~2026.10.17																					
	의류, 헤드기어, 액세서리	2021.10.17~2026.10.17																					
	가정용품, 이슬람 종교의식도구, 문구류, 사무용품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A등급)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B등급)	2021.10.17~2029.10.17																						
의료기기(C등급)	2021.10.17~2034.10.17																						
신청 주체	제품 제조사(생산설비가 인증 대상)																						
할랄심사기관	LPPOM MUI(국내외), Sucofindo(국내), Surveyor Indonesia(국내) 등 3개 기관																						
프로세스	 <p>[해외 심사 LPH 기관] - LPPOM MUI - Sucofindo Indonesia - Surveyor Indonesia</p> <p>*Lembaga Pemeriksa Hala(LPH):심사기관 출처: BPJPH Nomor 40 tahun 2022</p>																						
획득 소요기간	21~41일(서류 및 할랄 제품 공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인증명	할랄 인증		
획득 소요비용* (인증당)	구분	내용	비용(루피아)
	프로세스	(현지) 신규 할랄 신청	300,000~12,500,000
		(현지) 기존 할랄 인증 연장	200,000~5,000,000
		(해외) 할랄 인증 신청	12,500,000
		(해외) 기존 할랄 인증 연장	5,000,000
		해외기관 발급 할랄 인증 등록	800,000
	품목별 최대 단가	재료 및 공정이 간단한 제품	3,000,000
		가공식품, 화학, 미생물 관련 제품	6,468,750
		식품 첨가제	7,652,500
		유전자 변형 제품	5,412,500
		제약, 화장품, 및 생물 관련 제품	5,900,000
		백신	21,125,000
		젤라틴	7,912,000
		소모품과 그 포장	3,937,000
		서비스	5,275,000
레스토랑, 케이터링, 카페 등	3,687,500		
도살장	3,937,000		
자료: Keputusan Kepala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Nomor 141, Tahun 2021			
유효기간	4년(기존 MUI 할랄 확인서-Hala Decree 유효기간은 4년, 2년 단위 감사)		
타국 인증 상호 인정 여부	인정 추진 중 (BPJPH에서 상호 인정하는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규 신청 없이 별도의 등록 과정만 거치는 것으로 협의 중)		

주: 대행업체 활용 시 품목별로 기간 및 비용 상이

자료: PT. Green Nature Farm(무역관 인증 자문), Peraturan Pemerintah(PP) Nomor 39, Tahun 2021

- '22년 대통령령 제32호 National Commodity Balance System이 제정됨에 따라 수출입 관련 승인을 취득하기에 까다로운 상황
 - 정확한 수출입 데이터의 제공과 수출입 분야 라이선싱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운영코자 도입
 - 수출입 승인을 보장하고, 국가 주도 상품(national-scale commodities)의 생산 및 국가 산업 발전 관련 프로젝트의 생산·소비량 패턴 정보 취득 목적
 - * Hukumonline / Improving Business Certainty : Goct.Issues Provisions on Commodity Balances
 - 더해서 FTA로 인한 무분별한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수입자의 자격 및 수입화물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추세

※ 수입 허가요건 강화 [인터뷰: PT. SPL Logistics, PT. FCL Logistics]

- 코로나19 이후 화물 전수검사(Redline) 건수 증가
- 더해서 FTA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 선납 법인세 인상
- * 기존 2.5~7.5% → 변경 7.5~12.5%로 FTA 관세 면제 효과 상쇄

- (광물) 인도네시아는 니켈·주석 포함 다양한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원자재 부국
 - 자바(석탄, 니켈, 다이아몬드), 수마트라(주석, 보크사이트, 석탄 등), 술라웨시(니켈), 파푸아(동) 등 인도네시아 전역에 분포
 - 특히, 니켈과 주석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

〈인도네시아 주요 광석 매장량〉

광종	매장량	세계 순위	비중	활용 분야
니켈	2,100만 톤	1위	21%	배터리 양극재, 철강
주석	80만 톤	1위	17%	전자제품
코발트	60만 톤	3위	7%	배터리 양극재
보크사이트·알루미나	10억 톤	6위	3%	알루미늄 정제
구리	2,400만 톤	10위	3%	인쇄회로, 합금석

자료: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3

- 풍부한 매장량을 바탕으로 광물산업은 전체 GDP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중 하나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20년 광물산업은 주춤했으나 '21년 및 '22년에는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석탄을 비롯한 각종 광물산업 견고한 성장세 유지

〈인도네시아 광물산업 세부 성장 현황〉

(단위: %)

구분	항목	2020	2021	2022	2023.2Q
전체 GDP 비중	광물산업 전체	6.44	8.98	12.22	10.48
	석탄	1.83	3.55	6.62	5.64
	철강, 원광	0.85	1.21	1.24	1.27
	기타 채굴	1.60	1.50	1.36	1.30
연간 성장률	광물산업 전체	-1.95	4.00	3.91	4.97
	석탄	-5.43	6.60	3.96	13.71
	철강, 원광	20.26	22.84	23.96	-2.01
	기타 채굴	-1.22	1.97	2.94	3.50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다.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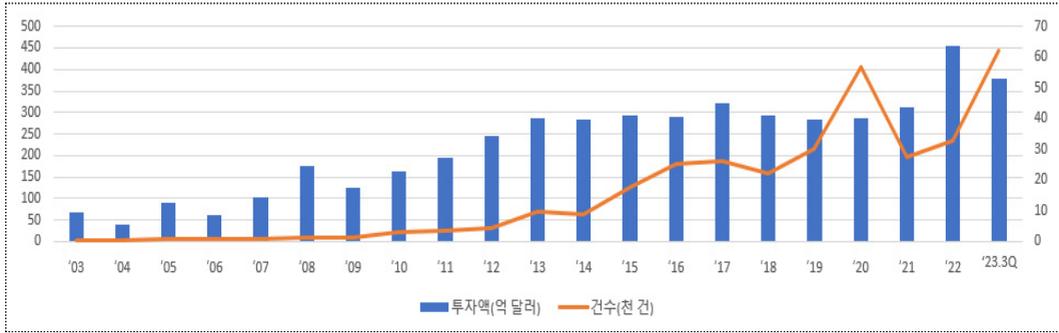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 FDI 동향

- '10년대 초반 투자액 급성장 이후 프로젝트 다변화 노력
 - 글로벌 금융위기('08) 이후 잠시 주춤했던 외국인 직접투자는 '10년부터 '13년까지 4개년 동안 연평균 2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 * '10~'13년 투자액 상위 국가(억 달러) : 싱가포르(202), 일본(94), 미국(61), 한국(57) 순
 - 이후 8년 동안('14~'21년) 인도네시아 FDI 투자액은 연간 300억 달러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투자 건수는 약 3.1배 수준으로 증가
 - * '14~'21년 투자 건수 상위 국가(천 건) : 싱가포르(50), 일본(29), 한국(23), 중국(14) 순
- '22년 FDI 투자액은 전년 대비 47%(145억 달러)가 증가한 456억 달러(역대 최대 투자유치액)를 기록하며 對인도네시아 투자 활성화 조짐을 보이는 중
 - 투자액 증가 상위 국가는 중국 51억 달러(160%), 싱가포르 39억 달러(41%), 말레이시아 20억 달러(145%), 일본 13억 달러(57%), 홍콩 9억 달러(20%), 한국 7억 달러(40%) 순
 - * 투자 증가액 기준 순서로 괄호 안 숫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
- '23년 3분기 누적 기준 FDI 투자 실적은 387억 달러, 62,171건으로 순항 중
 - 투자 금액은 전년 동기 334억 달러에서 13.2% 증가한 수치이며,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던 전년과는 달리 비교적 작은 규모의 투자가 다량 이뤄지는 중

〈인도네시아 FDI 추이〉

(단위: 억 달러, 건)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투자액	69	39	90	61	104	176	126	162	195	246	
건수	612	609	927	895	1,002	1,148	1,244	3,069	3,614	4,579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Q
투자액	286	285	293	290	322	293	282	287	311	456	378
건수	9,611	8,885	17,738	25,321	26,257	21,972	30,354	56,726	27,271	32,681	62,171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

- 싱가포르, 중국, 홍콩, 일본 등 상위 4개국이 전체 FDI의 2/3 이상 차지
 - '23년 3분기 기준 싱가포르는 121억 달러를 투자하여 對인도네시아 투자국 1위를 기록하였으며, 중국(56억 달러), 홍콩(52억 달러), 일본(33억 달러) 순으로 이어짐
 - 한국은 약 2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23년 3분기 전체 FDI의 5% 수준이며, 투자국 순위는 7위 기록

〈對인도네시아 투자 상위 국가〉

(단위: 억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분기
1위	싱가포르(92)	싱가포르(65)	싱가포르(98)	싱가포르(94)	싱가포르(133)	싱가포르(121)
2위	일본(50)	중국(47)	중국(48)	홍콩(46)	중국(82)	중국(56)
3위	중국(24)	일본(43)	홍콩(35)	중국(32)	홍콩(55)	홍콩(52)
4위	홍콩(20)	홍콩(29)	일본(26)	미국(25)	일본(36)	일본(33)
5위	말레이시아(18)	네덜란드(26)	한국(18)	일본(23)	말레이시아(33)	미국(24)
6위	한국(16)	말레이시아(14)	네덜란드(14)	네덜란드(18)	미국(30)	말레이시아(24)
7위	미국(12)	한국(11)	말레이시아(10)	한국(16)	한국(23)	한국(20)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

▣ 지역 및 산업별 투자 동향

- 자바섬 위주 투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자원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지 다양화 추세
 - '23년 3분기 기준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등 주요 대도시가 있는 자바섬에 약 143억 달러 투자가 진행되어 전체 투자액의 37.8% 기록
 - '20년부터 말루쿠, 술라웨시, 리아우 등 자원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

〈인도네시아 투자 유치 주요 지역 투자액/투자건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구분	2022			2023.3Q		
	지역	투자액	투자건수	지역	투자액	투자건수
1	중부술라웨시	7,486	216	서부자바	6,310	9,617
2	서부자바	6,534	6,208	중부술라웨시	5,440	333
3	북부말루쿠	4,487	116	자카르타	3,757	17,735
4	자카르타	3,744	8,942	북부말루쿠	3,717	201
5	반톤	3,411	2,240	반톤	3,440	4,097
6	동부자바	3,134	2,105	동부자바	3,097	3,448
7	리아우제도	2,748	318	리아우제도	1,932	555
8	중부자바	2,362	1,451	남부수마트라	1,224	426
9	북부수마트라	1,316	765	중부자바	1,159	2,624
10	동부칼리만탄	1,266	486	북부수마트라	983	1,151
-	총합	45,605	32,681	총합	37,809	62,171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

- 제조 및 인프라 분야 투자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서비스 업종 투자 증가
 - '23년 3분기 기준 금속 분야에 가장 큰 87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다음으로 교통·창고·정보통신 및 화학·제약 분야에 각각 42억 및 37억 달러 투자 진행
 - 기타 서비스와 식음료 분야는 타 투자 분야 대비 소액 투자가 주를 이룸

〈인도네시아 투자 유치 주요 산업 투자액/투자건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구분	2022			2023.3Q		
	분야	투자액	투자건수	분야	투자액	투자건수
1	금속	10,961	863	금속	8,678	1,173
2	광산	5,145	525	교통, 창고, 정보통신	4,240	2,545
3	화학, 제약	4,506	1,155	화학, 제약	3,662	1,626
4	교통, 창고, 정보통신	4,125	1,027	광산	3,488	877
5	전기, 가스, 수도	3,763	432	제제, 인쇄	2,266	571
6	부동산	3,015	2,175	전기, 가스, 수도	2,242	743
7	식음료	2,425	1,779	부동산	1,973	5,024
8	농식품, 농장	1,789	918	식음료	1,756	2,696
9	제제, 인쇄	1,630	393	농식품, 농장	1,638	1,199
10	기타 서비스	1,558	5,711	기타 서비스	1,474	12,215
-	총합	45,605	32,681	총합	37,809	62,171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

▣ 투자(현지 진출) 애로 요인

- 행정 처리에 있어 불확실성 존재
 - 투자부나 중앙정부에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인허가를 쉽게 승인해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은 지방정부 소관
 - 지방정부로부터 개별적으로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투자 결정 후에 불확실성이 존재

※ 행정 불확실성 예시 [인터뷰: PT. Doowang Consulting]

- 인도네시아 투자부에서 가스 인프라 투자 유치를 위해 K사에게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 명확한 지원 약속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진출 지연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필요
 -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 프린터 잉크(49.4%), 의류(38.9%), 가죽제품(37.2%), 소프트웨어(33.5%), 화장품(12.6%) 등, 인도네시아 국립대 경제학부와 인도네시아 위조상품배척회 공동 연구('20)
 - 한국 수출투자 기업이 상표 무단 선등록 행위를 발견했을 때도 자국민 보호 경향이 강하고 형식적인 요소를 우선시하는 사법부 성향에 따라 외국인이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어려움
 - 이를 방지하고자 KOTRA IP-DESK를 통해 사전 진출 전부터 상표권 등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지식재산권 현지 동향 [인터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IP-DESK]

- 최근 한국 기업 T사 상표가 현지 대리점에 의해 선등록되어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에서는 행정적 정당성만 고려해 대리점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음
-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진출 시 위조상품·선등록 문제와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에 상표명·특허 등록이 필요하며 KOTRA IP-DESK에서는 일부 비용 및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부분 참고 필요

- 급속도로 상승하는 현지 숙련 인력·대졸자 임금에 따른 채용 애로
 -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옴니버스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11월에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주별로 정하고 있음
 -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자카르타의 올해 최저임금은 440만 루피아(약 36만 원) 수준이나 이는 국가 기초교육만을 이수한 인력인 경우이며 대졸 신입사원은 이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음

- 현지 HR 전문기업인 PT. Cahaya Research 대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력직 급여(근무 경력 5년 이상) 임금 인상률은 33% 수준으로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24%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함(업종별/역량별 차이 존재)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최저임금만 생각하고 현지 진출하는 경우 적합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현지 인력 채용시장 동향 [인터뷰: PT. Cahaya Research]

- 인도네시아 근로자 임금은 업종별, 근무 형태별, 경력 등에 따라 상이
- 쉽게 인력 대체가 가능한 단순 서비스-제조업종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대졸 초임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600만 루피아(48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력 5년 이상 직원의 경우 서비스업은 1,000만 루피아(80만 원), 제조업은 900만 루피아(72만 원) 선으로 보임, 서비스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개인의 역량이 성과로 연결돼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더 많은 편
- 다만 위의 급여는 대략적인 수준임. 경력직의 경우 실제 업무 역량에 따라 급여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고,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역량을 기대하는 경우 한국인에 준하는 급여를 지불해야 채용이 가능
- 가끔 새롭게 진출한 기업들을 보면 급여 지출을 아끼기 위해 금액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설사 역량 있는 직원을 낮은 금액에 채용했다고 해도 해당 직원은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해 빠른 시일 내 이직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이에 따라 급여를 조금 더 주더라도 역량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더해서 구직자들에게 좋은 기업의 기준은 급여와 법으로 보장한 국민건강보험(BPJS) 외 추가 의료보험(사보험)과 교통비 및 식대와 같은 제반 수당 여부로, 해당 요소도 구인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위 부분은 PT. Cahaya Research HR 업무 주요 지역인 수도 자카르타와 주요 도시를 통해 파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직 시 참고용으로만 확인 바람
- 실제로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인도네시아인이 경력에 대한 전문성이 한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보여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태도나 적극성 등을 보고 채용하는 경우도 존재

라. 프로젝트

▣ 신수도 건설

- 신수도 법제화
 - 인도네시아 정부는 '22년 2월 15일 '신수도에 관한 법률(2022년 제3호)'을 공포
 - 신수도 이전은 자카르타 과밀화에 따른 지반 침수, 교통 체증 등을 타개하기 위해 '19년 8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발표하며 추진
 - 수도 이전 계획은 핵심 국정과제로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코로나19로 일정이 지연되다 '22년 2월 신수도법 제정, 3월 신수도청 신설, '23년 10월 신수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통해 신수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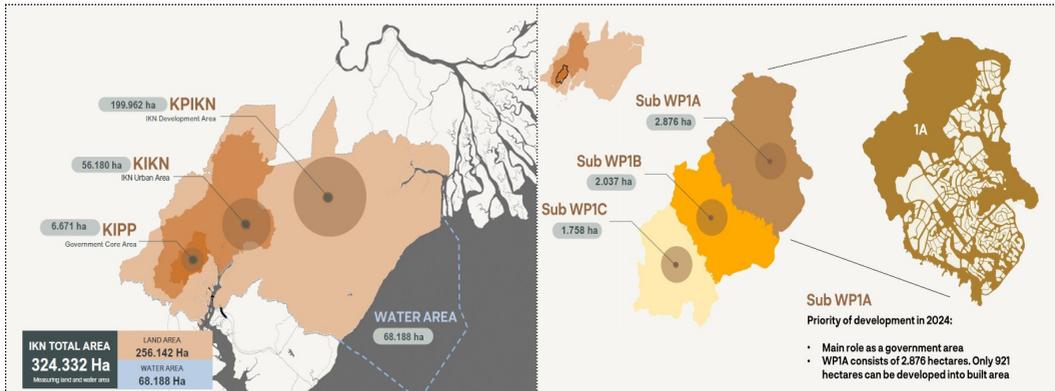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요〉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24년부터 마스터플랜에 따라 4단계로 개발
 -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명칭을 '누산타라(Nusantara, 군도)'로 명명하고, 신수도를 뜻하는 공식 용어를 'IKN(Ibu Kota Negara)'로 정함
 - 총 토지면적은 25만 6,142헥타르(Ha)로, 정부핵심구역(KIPP, 6,671Ha), 신수도구역(KIKN, 56,180Ha), 신수도개발구역(KPIKN, 199,962Ha) 등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 예정

〈신수도 부지 개발 계획〉



자료: GICC 2022(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인니 신수도부 장관 발표자료('22.8)

- 천문학적 소요예산 확보와 내년 대선 결과가 프로젝트 향방 좌우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신수도 건설과 인프라 구축 소요예산을 466조 루피아(약 340억 달러)로 추정하며, 이 중 19.2%를 국고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간 또는 민관 합작을 통해 조달할 계획

〈신수도 건설 및 인프라 구축 자금 조달 계획〉

분야	비율	소요예산	예산재원
Basic Service Infrastructures	19.2%	89조 4,700만 루피아	국고
Presidential Residence and Strategic Security Facilities			
Police/Military Official Residence			
Land Clearance			
Green Open Space			
Military Bases	26.2%	122조 900만 루피아	민간 투자
Public Housing			
Education Facilities			
Science Techno Park			
Enhancements on Connectivity Infrastructures (Air, Sea, Land)			
Healthcare Facilities	54.6%	254조 4,400만 루피아	민관 합작 투자
Shopping Malls			
MICE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and Exhibition)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ative Government Offices			
Infrastructures Not included in the National Budget			
Education and Healthcare Facilities			
Museums and Correctional Facilities			
Other supporting Public Facilities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모든 중앙정부 기관을 신도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국정연설 등에서 신도시 프로젝트의 연속성과 중요성을 강조
- 반면, '24년 대선 후보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 간자르 프라노워 전 중부 자바 주지사,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 등은 수도 이전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스마트시티 개발 및 구축

- 기후변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적극 추진 중

-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는 ①스마트시티 표준 제정, ②탄소중립 실현, ③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핵심 과제로 지정
 - 신수도에 적용될 스마트시티 표준을 '25년부터 전 도시에 적용할 예정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종류

- ①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신도시 개발형): '45년까지 행정수도를 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40조 원 규모(정부 20%, 민간 80%)의 프로젝트로 '45년 인도네시아가 목표로 하는 'GDP 7조 달러, 세계 5위 경제 대국 달성'을 위한 정부 핵심 과제로 지정
- ② 100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솔루션 제공형): '45년까지 인도네시아 전체 도시를 스마트시티화 하는 프로젝트로 자카르타, 마카사르 등 총 195개 도시가 참여 중('23.4)

- 우리나라 포함 16개국 이상의 정부 및 민간기업이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 참여 중
 -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의 경우 에너지, 교통 인프라 및 주거단지 건설 등 총 291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향서 접수('23)
 - 우리 기업의 경우 행복청(정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 등과 LG CNS 등 에너지·환경·건설 분야 민간기업 적극 참여 중
 - * LG CNS(신수도 청사진 설계), 행복청 & 한국주택도시공사(신수도 공무원 주택단지 건설), 한국수자원공사(신수도 상수도 건설), 현대엔지니어링(신수도 정유 설비 건설) 등

▣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적극 육성 계획

-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5년까지 23%, '30년까지 65% 이상으로 확대
- 탄소세 시행,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설립 금지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성 개선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해 관련 분야의 진출 및 투자를 적극 지원 중
 -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탄소 배출량(톤)당 2.1달러 세금 부과 계획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금지, 석탄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구매 중단 가속화 및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구매기준 도입 등
- 신수도 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100%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 '23년까지 공공 및 상업시설에 건물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변전시설, 발전기 등 전력 인프라 지원
 - '25년까지 50MW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

〈신수도 지역 내 태양광 발전 세부계획〉

분류	총생산량(MW)	비율(%)
PLTS Terapung(수상 부유 설치형)	363	61%
PLTS Atap(건물 지붕 설치형)	174	29%
PLTS Farm(폐광 등의 토지 위에 설치)	50	9%
PLTS PJU(가로등 설치형)	4	1%
전체	591	100%

자료: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 신수도 지역,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시장 수요 확대에 따른 진출 기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높은 일평균 일조량(5~6kWh/m²)에 따라 1MW 전력 생산에 필요한 토지 규모가 1Ha에 불과할 정도로 태양광 발전에 유리함
 - 특히, 가장 큰 규모의 '수상 부유형 태양광 발전 시설'의 후보 입지 선정

〈신수도 지역 내 수상 부유형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예정지〉

위치	면적(Ha)	잠재생산량(MW)
Lambakan 댐	3,767	188
Beruas 댐	1,068	53
Safiak 댐	873	44
Selamayu 댐	812	41
Batu Lepek 댐	519	26
Sepaku Semoi 댐	232	12
전체	7,271	364

자료: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가. 교역

▣ 한국과의 수출입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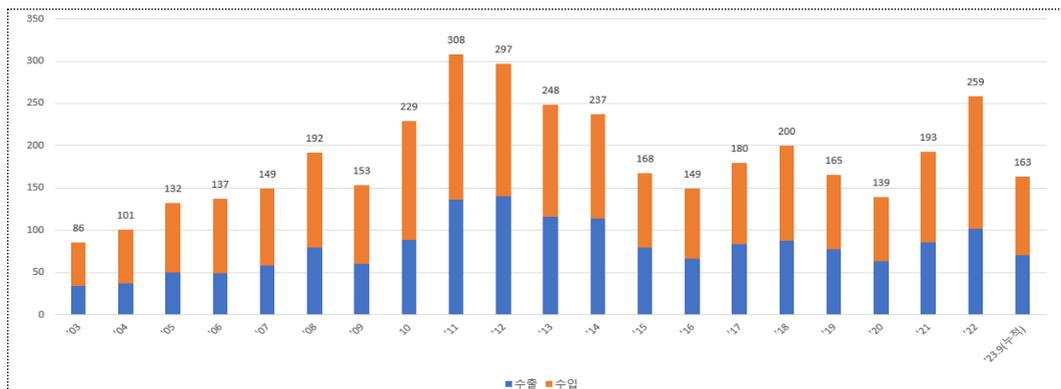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총 교역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양국 교역은 증가 추세
 - '03~'22년간 인도네시아 전체 교역 규모는 연평균 9.4% 증가했으며, 한국과의 교역액은 연평균 6.0% 증가
 - '11년 양국 간 교역액이 308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이후 반등
 - 20년 기간 중 후반기('13~'22) 교역액은 전반기('03~'12) 대비 8.6% 증가하며 양국의 교역 규모는 확대 중

〈한국과 인도네시아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수출	34	37	50	49	58	79	60	89	136	140
수입	52	64	82	88	91	113	93	140	172	157
교역액	86	101	132	137	149	192	153	229	308	297
수지	△18	△27	△32	△39	△33	△34	△33	△51	△36	△17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9(누적)
수출	140	116	79	66	84	88	77	63	86	102	70
수입	132	123	89	83	96	112	88	76	107	157	93
교역액	248	237	168	149	180	200	165	139	293	259	163
수지	△16	△9	△10	△17	△12	△24	△11	△13	△21	△55	23



주: 데이터 숫자 레이블은 교역액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품목 동향

- 수출 상위 10개 품목 동향
 - '03년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에 달했지만 '22년 기준 53%로 증가
 - '22년 주요 수출품은 석유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등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자동차, 반도체 등이 추가되고 음향기기, 컴퓨터, 선박부품 등이 제외됨
 - '23년 9월 누적 기준 주요 수출품은 전년과 유사하나, 10대 품목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다소 감소

〈한국의 對인니 주요 수출 품목 변화〉

(단위: USD 백만)

순위	2003		2022		2023.9(누적)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1	합성수지	218	석유제품	1,809	석유제품	701
2	철강판	195	철강판	819	철강판	559
3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91	합성수지	784	자동차	437
4	음향기기	188	반도체	547	합성수지	424
5	기타직물	148	편직물	335	반도체	337
6	전자관	133	합성고무	294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205
7	컴퓨터	120	정밀화학원료	245	편직물	186
8	인조장섬유직물	118	자동차	208	정밀화학원료	177
9	무선통신기기	108	기타석유화학제품	202	금속공작기계	162
10	편직물	101	건설광산기계	200	합성고무	147
10대 품목 소계		1,520	10대 품목 소계	5,443	10대 품목 소계	3,335
총 수출액		3,378	총 수출액	10,216	총 수출액	7,034

주: 품목 구분은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혜택

- '23년 1월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시행
 - 한국은 수입 품목(95.5%), 수입액(97.3%) 관세 철폐, 인도네시아는 수입 품목(93%), 수입액(97%) 관세 철폐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개방 내역〉

한국 시장 개방	인도네시아 시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성이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 *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녹차(513%), 사과(45%), 배(45%)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측 관심 품목에 대해서도 기 체결 자유무역협정 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 ○ 특히, 사용자 특별면세제도(USDFS)와 유사한 조항이 삽입되어 자동차, 철강 분야 우리 기업들의 혜택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유(3~5%, 즉철), 벙커씨유(3~5%, 즉철), 정밀화학 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은 우리 측 민감성이 높지 않으나, 이익균형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 철폐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측은 섬유(면사(5%)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 개방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 높은 수준의 규범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겪는 비관세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아세안 FTA와 한-인니 CEPA 원산지 증명 비교〉

품목	개선내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섬유, 의류	단순화	업계 활용 불편한 특수기준 규정 (원사기준, 공정기준, 결합기준)	특수기준 삭제
기계, 전자	기준 완화	역외산 부분품 사용 난해 (세번변경기준, 역내 부가가치율 40% 이상)	역외산 부분품 사용 용이
자동차부품	선택기준 확대	일부 품목은 단일기준 활용 (세번변경기준 없이 역내부가가치율만 적용)	모두 선택기준으로 변경 (세번변경 or 역내부가가치율)
철강	기준 완화	일부 스테인리스 품목은 냉연 공정 시에도 원산지 불인정	냉연 공정 시 스테인리스 품목 원산지 인정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 한국 기업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 (성공 사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287억 원 규모의 환경 플랜트 수출 성사
 - D사, '22년 6월 인도네시아 최대 쓰레기 매립장인 반타르그방(Bantar Gebang)에서 하루 2,000톤의 폐기물을 분리·선별하여 700톤의 폐기물 고형연료(RDF)를 생산하는 설비를 수출하는 프로젝트 수주
 -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2,100만 달러(한화 약 287억 원) 규모의 '폐기물 에너지화(Waste to Energy) 설비' 공급을 위한 계약 체결
 - D사는 '97년 창업 이후 26년간 친환경 분야에만 집중해온 환경설비 전문 강소기업
 - '17년 신재생에너지 타당성 조사로 시작하여 '18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인도네시아에 직접 파일럿 설비를 설치·운영하면서 우수한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 각인
 - KOTRA를 통하여 지속적인 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성, 파트너 물색,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 진출을 도모하여 5년 만에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

KOTRA 주요 지원 사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2.2) 현지 파트너 발굴 등 인니 정부 프로젝트 수주 지원 * ('19) 현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현재 잠재 파트너 발굴 지원 * ('19~'22) Bantar Gebang 매립지 프로젝트 관련 현지 법인 운영, 기술 이전 및 현지 규제 조사** 지원 ** 공공 프로젝트 진출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국산 부품 사용 요건 (TKDN) 관련 국영 시험인증기관(Sucofindo) 핵심 인사와 미팅 주선 ('21년 10월) * ('22년 2월) 최종 프로젝트 수주 	 <p>컨소시엄 MoU 체결식 ('19.7월)</p>

-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바이오매스 등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찾아 연구개발을 꾸준하게 진행해오고 있으며, KOTRA '해외 지사화 사업'에 참여해 지속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 중
- (성공 사례) 우리 밸브 기업, 주력 시장인 미국·중국 시장에 이어 인니 시장 진출 성공
 - B사, 현재 주력 수출국가인 미주·중국·대만의 매출이 안정화가 되고 있으며 매출액 쿼터 점프를 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를 신규 집중 타깃으로 설정, 현재 신규 고객 발굴에 집중
 - B사는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을 위해 관련 산업(오일&가스, 석유화학 등) 규모가 큰 인니 시장을 동남아 시장 확대를 위한 집중 타깃 국가로 설정

- (진입 여건) 인도네시아는 오일&가스,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조선 등 관련 산업의 규모가 크게 형성되어 있어 밸브 및 피팅류의 시장성이 큼
- (진입전략) 소수의 과점 경쟁사들과 견줄 수 있는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사 대비 30%가량 낮은 가격을 경쟁력으로 활용, 소수의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공급처 대체 수요 포착

- 신규 공급자 검토에 보수적인 업계 특성 및 B사 제품이 특히 기술인 만큼 제품 시연의 중요성으로 인해 전시회 또는 출장 등이 적합하나 B사는 코로나 상태로 인도네시아 신규 거래처 발굴에 답보 상태였으나, KOTRA 지사화 사업의 현지 전담직원을 통해 바이어 발굴 및 현지 밀착 지원 추진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B사의 지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업계 1, 2위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바이어를 타깃으로 지속적인 대체 수요 발굴, B사의 제품의 시연이 필수적인 만큼 화상상담을 통해 제품 시연 및 화상상담 후 적시 무역관 보유 샘플 송부를 통해 실제 성과 창출
 - 바이어 P사는 석유 플랜트 프로젝트에 특화되어 있는 바이어로, 그간 밸브 및 피팅은 업계 1위인 경쟁사 제품만 사용해왔으나, B사와 화상상담상의 제품 시연을 통해 기술적 장점 확인 및 국내 기업 신뢰 형성
 - 화상상담 직후, 자카르타 무역관은 이미 보내진 샘플을 바이어에 적시에 송부하여 바이어 화상상담 직후에 실제로 샘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자카르타 무역관의 실제 바이어의 샘플 확인, 가격 협상 지원 등을 통해 최종 구매계약 체결
- (실패 사례) 민감 품목(주류)에 대한 세관의 자의적 세번 분류로 통관 지연
 - 수출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출업체 측에서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 문의
 - 이전까지 동일 제품으로 수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통관 허가를 내주지 않음에 따라 현지 수입업자 측 물량 조달 문제 발생
 - 통관 거부 사유는 소비세 부분에 문제로, 무슬림 인구가 87%로 주류 수입 관련 규정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주류의 경우 수입 통관 시 납부하는 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 이외에 국내소비세(CUKAI) 납부 필요
 - 시기에 맞게 유통을 진행해야 하는 수입업자가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며 납품 실패

나. 투자 진출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 개황

- 한국의 해외 자원 1호 투자처로 시작해 약 2,300개 사가 현지 진출 중

〈우리 기업의 단계별 對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추이〉

Stage 1	Stage 2	Stage 3	Stage 4
노동집약적 산업 (1980년~)	생산 거점 확보 (1990년~)	내수 공략 시장 발굴, 대형화 (2009년~)	내수시장 공략 지속 및 서비스 산업 (2012년~)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확보 목적	생산에 직결되는 원부자재 확보 및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한 Assembly형	소득 향상에 따른 내수시장 공략과 내수/수출에 대한 동시 타깃형 투자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회계, 법률, 금융 서비스 및 내수/수출에 대한 동시 타깃형 투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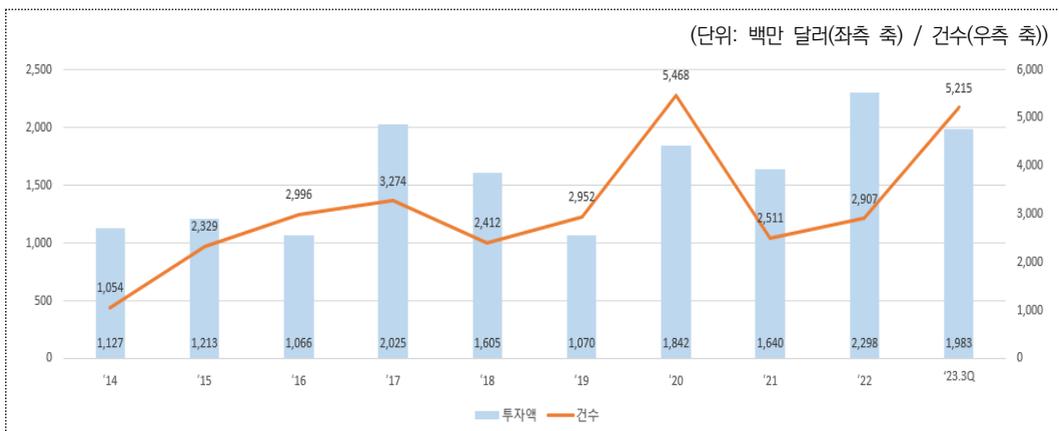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정리

- 대기업의 대형 투자 진출 여부에 따라 부침을 거듭, '21년에는 대규모 투자 다수 발생
 - 포스코('10), 한국타이어('11), 롯데케미칼('10), 종근당('15), 지누스('18), 현대자동차('19), KCC('21), LG에너지솔루션('21) 등이 있음
 - '19년을 제외하고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한국의 인도네시아 해외 직접투자 추이(투자액, 건수)〉

(단위: 백만 달러, 건수)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Q
투자액	1,127	1,213	1,066	2,025	1,605	1,070	1,842	1,640	2,298	1,983
건수	1,054	2,329	2,996	3,274	2,412	2,952	5,468	2,511	2,907	5,215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

- 활발한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진출,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 '19년을 제외하고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지속 추진되고 있는 대기업 투자에 따른 관련 협력사 투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 소액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인도네시아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ASEAN 시장(할랄 시장 포함) 공략을 위해 교두보 마련을 위한 투자 진출 증가

▣ 주요 투자 지역과 분야 동향

- 자바섬 위주로 투자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프라 및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지 다양화
 - 수도 자카르타 접근이 쉬운 서부 자바 산업단지(현대자동차 입주)와 반튼주에 많은 한국 기업 투자 중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개발 중인 바탕산업단지를 포함한 중부자바 지역 제조업 분야 주로 투자
 - 신수도 이전지인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지역에도 인프라 관련 투자 진행 중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지역별 투자액/투자건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22			2023.3Q		
	지역	투자액	투자건수	지역	투자액	투자건수
1	반튼	758	396	서부자바	872	1,778
2	서부자바	683	936	반튼	577	591
3	중부자바	350	273	중부자바	213	482
4	동부칼리만탄	152	15	자카르타	111	1,563
5	자카르타	104	866	동부자바	66	272
6	동부자바	90	146	동부칼리만탄	62	21
7	말루쿠	58	5	남부파푸아	23	25
8	파푸아	43	21	벨리툽	16	13
9	서부칼리만탄	31	26	서부칼리만탄	9	36
10	벨리툽	12	7	아체	8	29
-	총합	2,298	2,907	총합	1,983	5,215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

• 주요 투자 분야

- '23년 3분기 한국의 주요 투자 분야는 기계·전자·의료기기 분야(5억 4,600만 달러)이며, 전기·가스·수도(4억 4,600만 달러) 및 가축제품·신발(1억 3,100만 달러) 분야가 그 뒤를 잇는 중

〈산업별 인도네시아 투자 순위〉

(단위: 백만 달러)

년도	2022			2023.3Q		
	산업	투자액	투자건수	산업	투자액	투자건수
1	전기, 가스, 수도	666	19	기계, 전자, 의료기기	546	202
2	가축제품, 신발	296	153	전기, 가스, 수도	446	57
3	자동차, 운송장비	257	37	가축제품, 신발	131	197
4	기계, 전자, 의료기기	203	152	화학, 제약	127	169
5	섬유	190	335	섬유	104	447
6	광산	153	16	기타 산업	96	271
7	금속	91	81	비금속	86	19
8	화학, 제약	73	81	자동차, 운송장비	74	48
9	기타 산업	67	153	광산	63	23
10	부동산	64	61	무역	52	1,926
-	총합	2,298	2,907	총합	1,983	5,215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

-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주한 프로젝트 수주나 ODA, EDCF 등 다양한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진출 중

〈한국 기업 인도네시아 공사 프로젝트 수주 금액 추이('19~'23.9)〉

(단위: 천 달러)

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9
토목	77,712	43,154	12,703	55,048	74,216
건축	3,924	239,827	54,297	191,207	95,576
산업설비	3,646,654	434,958	67,126	3,137,523	243
전기통신	826	0	2,848	193	5,448

자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 (공급망) 광물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 개요 및 전망

- 인도네시아 주요 외국인 투자 분야 중 하나로 부침을 거듭 중
 - 광물 산업은 '20년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5위를 기록한 후 '21년 및 '22년 2위를 유지한 주요 투자 유치 분야
 - 투자 유치액은 '17년 최고치를 기록 후 하락세를 보이다 '21년 들어 반등에 성공했으며, '22년 광물 분야 투자액은 51.4억 달러에 달해 코로나19 이전 수준 상회
 - * 광물 분야 투자액(억 달러) : 43.8('17) → 30.4('18) → 22.6('19) → 20.1('20) → 38.2('21) → 51.4('22)
 - '23년 3분기 기준 광산 분야 투자액은 34.9억 달러로 4위를 기록하고 있음
- 광물 분야 주요 투자 국가는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며 한국도 주요 투자국
 - 인도네시아 광물 분야 누적('90~'23.3Q) 투자액 기준으로 미국은 186.6억 달러 수준을 투자해 1위 투자국(점유율 29.5%)
 - 그 뒤를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잇고 있으며 한국도 16.6억 달러를 투자해 7위 투자국 자리 차지 중(점유율 2.7%)

〈인도네시아 광물 산업 주요 투자국〉

(단위: 백만 달러)

구분(순위)	2019	2020	2021	2022	2023.3Q	누적 투자 ('90~'23.3Q)
미국(1)	772	515	1,686	2,417	1,947	18,663
싱가포르(2)	361	596	820	1,399	617	8,603
네덜란드(3)	153	133	440	40	6	3,778
모리셔스(4)	71	49	94	84	35	3,306
호주(5)	193	234	115	414	246	3,099
캐나다(6)	174	158	172	189	146	1,667
한국(7)	167	16	30	153	63	1,659

주: 내수 투자 및 다국가 연합 투자 등 일부 특이치 제외, 기간 중 누적 투자 기준 내림차 순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 '09년 개정된 인도네시아 광업법을 통해 기본사항 규율('14년 1월 시행)
 - 이전 계약 기반 영업권, 광물 개발 협정, 광권, 채굴권 등이 단일화된 특정 광업 지역 기반 면허 시스템(license system)으로 대체

- ① IUP(Izin Usaha Pertambangan) : Mining Business License
- ② IUPK(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 Special Mining Business License
- ③ IPR(Izin Pertambangan Rakyat) : People's Mining License
- 면허 보유업체(license holder)는 하청업체에 광산 업무 전체를 하도급 계약하기 보다는 책임 부여를 위해 일부는 직접 수행하도록 규율
- 기존 인도네시아와 외국 투자자 사이의 많은 차이점을 제거, 100% 외국 투자를 허용
- 광산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인도네시아에 유보 및 재투자 유도
 - * 생산 연차 10년 이전까지 외국 투자의 광업사업 허가 지분을 51%까지 매각
 - * 가공 처리되지 않은 광물 수출 제약 및 인니 내 가공 처리 의무화
 - * 최소한의 국내 시차 판매(DMO: Domestic Market Obligation) 의무 절차 도입
 - * 원자재 수출 시 거래의 최소 금액을 정하는 가격 벤치마크 체제 도입
- 위의 광업법을 바탕으로 현황에 맞게 수정하며 운영 중
 - '17년 광업법 관련 개정을 통해 ①인니 유관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미제련 광물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변경, ①더해서 제련소 설비 완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부여했던 49% 초과 지분 보유 인정 규정을 삭제
 - '20년 개정 광업법을 발표해 ①'09년 이전 허가를 받았던 광산 운영업체들의 허가권 연장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②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있던 광업 허가 권한을 에너지광물자원부로 귀속
- 유니버스법 시행으로 특정 광물의 제련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 '20년 10월 전격적으로 공포된 고용 창출에 관한 법률(유니버스법) 중 투자에 관한 시행령인 대통령령 2021년 제10호(Perpres No.10, 2021)에 따라 특정 광물(구리, 니켈, 망간 등)의 가공 및 제련업이 우대업종으로 지정
 - 우대업종으로 지정된 분야는 투자 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인허가 신속 지원 등 다양한 유·무형 혜택 부여 가능
- 글로벌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니 정부의 광물자원 수출 제한 정책에 따른 기대와 우려 공존
 - 단기적으로는 광물 수출 금지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와 광물 수출에 따른 세금·로열티 감소로 무역·경상수지에 악영향 예상
 -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가능해지며 인도네시아 무역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받던 원부자재 수입 의존도 감소와, 역내 GVC 참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관련 분야 투자 대비 필요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계획을 바탕으로 핵심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국산 부품 사용 비중(TKDN) 확대, 자국 수요를 우선한 수출입 제도 운영, 투자 유치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
 - 아직까지 부족한 관련 인프라와 불확실한 행정 처리 등 투자 제한 요인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진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국 기업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 (성공 사례) 코로나19로 인해 포착한 신시장(헬스케어) 개척 기회
 - L사는 198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이후 수출 트레이딩 외에 팜오일 농장과 수력발전 등 다양한 사업 수행 중
 - 인도네시아 신사업 확장을 위해 유망 분야를 찾던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방역물품 관련하여 다양한 확보 요청을 받음
 - 초기 PCR 진단 키트와 다양한 의료기기 기부를 진행하다 현지 코로나19 진단 시장 성장성을 보고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됨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컨테이너 형태로 PCR 진단이 가능한 LAB 시설을 현지 재난방재청·보건부 협업을 통해 하나의 의료기기로 현지에 공수해 운영 시작
 - 올해 10월 기준, 인도네시아 주요 지역에 총 3개 랩을 직접 운영, 술라웨시 지역에는 1개 랩을 기부해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향후 PCR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단기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진단 관련 다양한 사업 추진 중
- (실패 사례) 제품 특화 실패와 코로나19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 철수
 - L사는 '11년 인도네시아 요식업에 진출한 이후 패스트푸드 및 커피 등 2개 브랜드에 대한 매장을 최대 35개까지 운영하였음
 - 하지만 현지 시장점유율 80%를 기록 중인 글로벌 기업(K사 및 M사)과의 경쟁에서 L사 시장점유율은 1%를 넘지 못한 채 고전하며 매출 부진으로 매장 수 축소
 - 특히,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영업시간이 단축되며 매출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어 전격적으로 철수 결정

다. 협력 유망 분야

▣ 경제협력 개황

- 인도네시아, 한국의 주요 교역 및 투자 대상국
 -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최초 해외 투자 대상국이며 최초 해외 유전 공동 개발국
 - 양국 간 경제협력의 역사는 '60년대 후반부터 제1호 플랜트 수출로 시작
-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수교 50주년에 따라 협력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
 - '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음
 - '22년 7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방한하여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연대 구축 합의
 - '23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하고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방안 논의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추진 현황〉

연도	교류 성격	주요 내용
2018	인도네시아 대통령, 한국 국민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6가지 중점 협력과제 재확인 ○ 상생과 미래 성장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 경제, 인사행정, 법제교류, 해양안보, 산업혁신 연구 협력에 대한 6건의 MOU 체결 - 기업 및 경제 기관은 약 62억 달러에 이르는 양해각서, 거래조건협정서, 계약 등 15건 체결 * 제조업, 인프라, 4차 산업혁명, 공정무역, 스타트업·창업, 전력발전, 화장품,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도시개발 등
2019	일본 방문(G20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니 CEPA 연내 타결 논의 ○ 인프라, 자동차, 석유, 방산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 논의
2019	인도네시아 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한국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선언 ○ 6가지 중점 협력과제 이행을 위한 교류 본격 추진
2022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니 간 실질 협력 증진과 국제 현안 공조 강화 ○ 인니 수도 이전 사업 관련 업무협약 ○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 구축
2023	한국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 양국 경제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 체결 ○ 인적 교류, 국방·방산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강화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정리

▣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신수도 건설

• 신수도 법제화

- 인도네시아 정부는 '22년 2월 15일 '신수도에 관한 법률(2022년 제3호)'을 공포
- 신수도 이전은 자카르타 과밀화에 따른 지반 침수, 교통 체증 등을 타개하기 위해 '19년 8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발표하며 추진
- 수도 이전 계획은 핵심 국정과제로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코로나19로 일정이 지연되다 '22년 2월 신수도법 제정, 3월 신수도청 신설, '23년 10월 신수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통해 신수도 건설에 박차를 기하는 중

▣ 한-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

- '20년부터 한국 국토교통부와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해외에 확산하기 위해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 중
 - * 인니 신수도 관련 사업 : 신수도 스마트시티 기본 구상(2020년),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2021년) 등
- 한국 기획재정부와 KIND는 EIPP(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을 통해 '신수도종합 계획', '자금조달방안', '에너지전환계획' 등의 정책 자문을 제공 중
- KOTRA는 '20년 인도네시아를 포함 신남방 주요국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개소해 신도시를 포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발굴과 수주 지원 활동을 추진 중

〈한-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구분	사업기간	인니 부처
스마트시티 기본 구상	'20년 K-City Network	'20.7 ~ '21.5	공공주택 사업부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21년 K-City Network	'21.9 ~ '22.4	
신수도 개발 종합계획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20.11 ~ '21.9	국가개발 기획부
수도 이전에 따른 자카르타 수도권 경제개발전략 수립			
신수도 자금 조달방안 1차			
신수도 에너지 전환 마스터플랜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21/'22년 인도네시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22.1 ~ '22.11	국가개발 기획부
신수도 개발계획 2차 - 토지 확보, 활용 및 실행 관리 조직 운영			
신수도 자금 조달방안 2차 - 이전 적지 매각 및 국부펀드 활용			
신수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및 숲도시 개발계획			
신수도 지능형 교통체계 및 전기차 대중교통 도입 기본 구상			
신수도 에너지 전환계획 2차 - 가스 활용 최적화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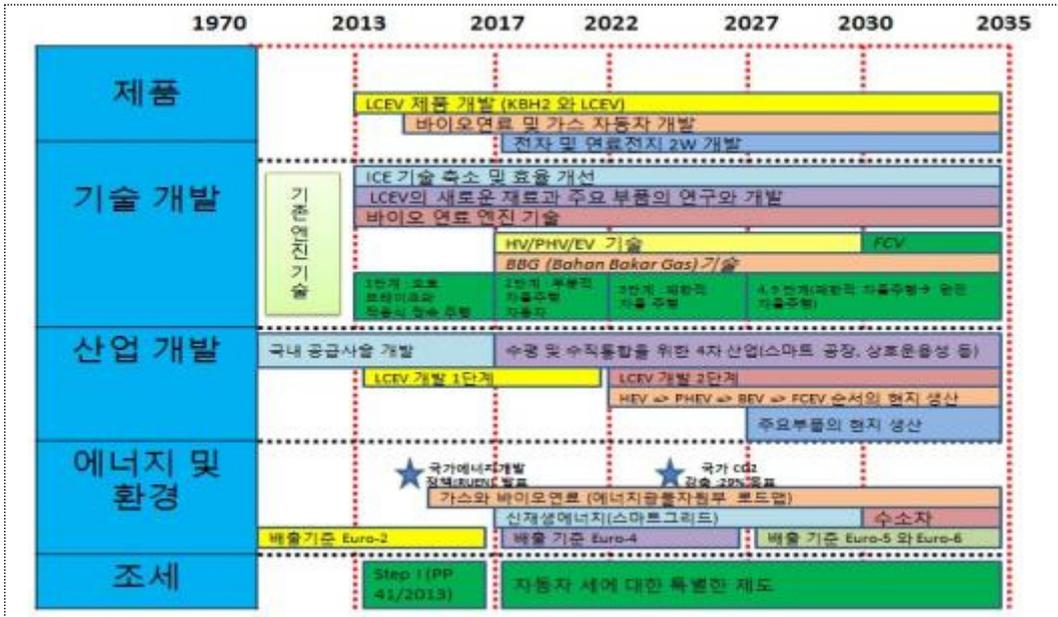
자료: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홈페이지(조회 기준일 '23.10.5)

- 또한 한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1년 2월 인도네시아 주재 29개 공공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인니 수도 이전 협력 팀코리아'를, 같은 해 6월 인도네시아 국민평의회 회장·국회의장 등과 '한-인니 협력망'을 출범해 양국 교류와 협력사업을 발굴 중
- '22년 7월 양국은 '수도 이전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국토교통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는 '수도 이전·개발 기술협력 양해각서 개정의정서'를 체결
- '22년 8월 인도네시아 신수도청장은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신수도 관련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중
- '23년 3월,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심으로 건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분야 50여 개 민간 기업과 LH, 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공기업으로 구성된 수주지원단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본격 추진

▣ 기업 차원에서의 협력 유망 분야 : 전기차

- 전기차 생태계 관련 정책
 - 인도네시아는 2018년 발표한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에서 전기차 산업 육성을 언급하고 그간 자동차 산업이 단순 조립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음을 천명
 - 아울러 니켈 원광의 단순 수출에서 벗어나 니켈 제련, 중간제품 생산 및 최종재인 전기차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원자재 다운스트림 육성책을 전기차 산업에 적용 중
 - '19년 8월 '전기차 개발에 관한 대통령령(2019년 제55호)'을 공포하고 '25년까지 전기차 관련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
 - * 전기차(BEV) 생산을 자동차 생산 대수의 20% 수준 달성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비, 전기차 생산 시 현지 재료·부품 조달률(TKDN) 등 포함
 - 자동차 생산 시 국산 부품 사용 요건(TKDN) 지속 확대*
 - * 4륜 이상 전기자동차('30년까지 국산 부품 80%), 2륜 및 3륜('26년까지 국산 부품 80%)
 - 또한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019년 1월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로드맵'을 공개하고, 2020년 9월 산업부 장관령으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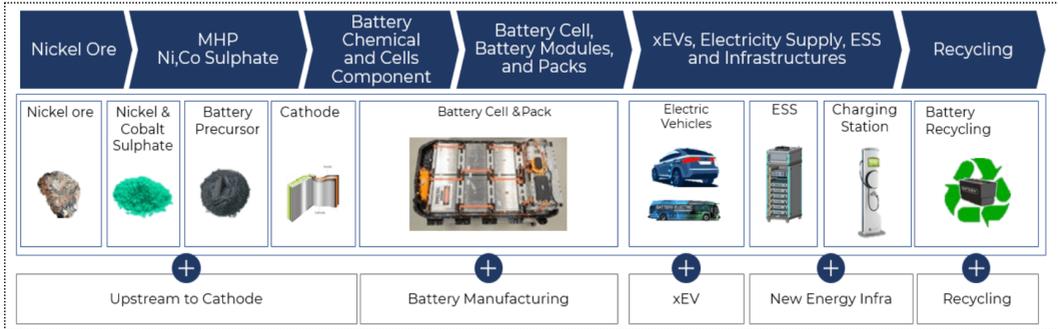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발전 로드맵〉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Kemenperin)

- 더해서 '40년부터 전기 오토바이, '5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를 허용할 방침
 -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21.6)
- 이외에도 정부는 '25년까지 전동자전거와 전기버스를 포함 약 89만 2,000대의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이며, 전기차 관련 다양한 정책과 규정이 마련 중
 - * '22년 9월 '공공 부문 전기차 이용 촉진'에 대한 대통령 지시(2022년 제7호)
-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
 - 정부와 국영기업 4개 사가 출자한 법인(PT. Industri Baterai Indonesia)*을 설립, 이차전지(전기차 배터리) 생산 생태계 구축 노력
 - * PT. Aneka Tambang(광산), PT. Indonesia Asahan Aluminium(광산), PT. Perusahaan Listrik Negara(전력), PT. Pertamina(석유) 등 4개 사 합작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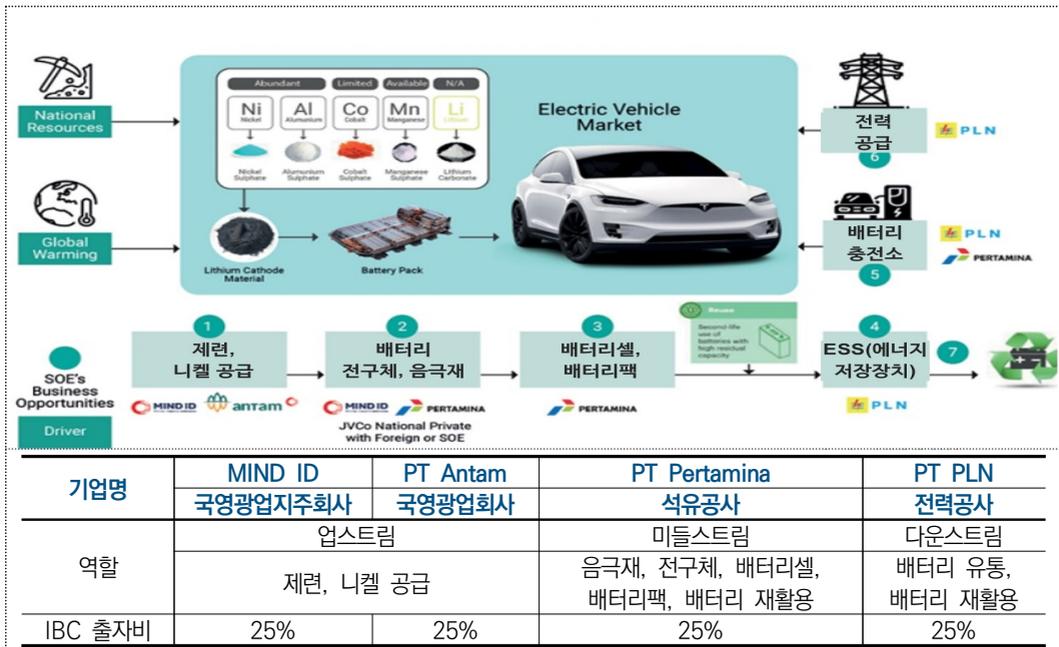
〈PT. Industri Baterai Indonesia 전기차 밸류체인 구축 계획〉



자료: PT. Industri Baterai Indonesia

- 니켈 채굴/제련에서부터 음극재, 전구체, 배터리셀, 배터리팩 생산, 배터리 유통 및 재활용까지의 공급망을 국영기업 주도로 구축 중이며, 관련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과의 협력이 빠른 속도로 전개 중
- IBC는 단계적으로 17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2030년까지 국내산 전기차 200만 대, 국내산 전기이륜차 1,000만 대에 공급할 계획
- '30년까지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해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자동차의 생산 및 수출기지화 추진

〈인도네시아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 참여 기업〉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G)

- 한국, 대만, 중국 기업의 전기차 생태계 참여 각축
 - 현대차는 '22년 3월부터 인도네시아 델타마스 공장에서 전기차 양산 시작
 - 전기이륜차 부문에서 대만 폭스콘과 세계 1위이자 대만 전기스쿠터 업체 고고로(Gogoro)는 투자부(BKPM), 인도네시아배터리코퍼레이션(IBC)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배터리셀, 모듈, 배터리 회수 등의 생태망 구축 계획

〈주요국의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참여 동향〉

국가	기업명	내용
한국	현대자동차	'22.3월 델타마스 완성차 생산공장 완공, 아이오닉 5 양산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23.9월 카라왕 배터리셀 공장 준공 및 시험 생산 시작
	현대캐피탈	'22.7월 인니전력공사와 이륜전기차 인프라 구축 양해각서 체결
	LG컨소시엄	'22.6월 바탕산업단지에서 '그랜드 패키지 프로젝트' 선포식
대만	폭스콘-고고로	'22.1월 인도네시아배터리코퍼레이션(IBC)과 양해각서 체결
	폭스콘	'22.6월 바탕산업단지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발표
중국	CATL	'22.4월 국영광업회사(PT Antam) 등과 배터리 프레임워크 계약 체결
	BYD	'20년부터 트랜스 자카르타(Trans Jakarta) 전기버스 시범 운행 중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 전기차 판매도 빠른 속도로 증
 - '22년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는 10,327대 판매되었고 '23년 8월 누계 판매 대수는 23,893대로 증가
 - 반면 '23년 3월 기준 인니 전역 배터리 충전소 설치 수는 총 6,705개 불과해 전기차 인프라는 미흡한 상황
 - * 인도네시아 정부는 '29년까지 19만 여개의 충전소 설치를 계획

〈인도네시아 전기차(EV) 판매 실적 ('23.1~8월 누계)〉

그룹	브랜드	차종	모델명	판매 대수
도요타 그룹	도요타	승용차	RAV4	1
		SUV	bZ4X	451
		MPV	Innova	15,710
	렉서스	SUV	Lexus UX	30
		SUV	Lexus RZ	80
르노·닛산	닛산	승용차	Leaf	73
GM 그룹	울링	승용차	Air EV	2,424

그룹	브랜드	차종	모델명	판매 대수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현대	승용차	Ioniq6	154
		SUV	Ioniq5	4,315
	기아	SUV	EV6	42
	Genesis	승용차	Genesis G80	1
Mercedes-Benz 그룹	Mercedes-Benz	승용차	EQE	25
		승용차	EQS	45
		SUV	EQA	13
		SUV	EQB	12
BMW 그룹	BMW	승용차	BMW i4	43
		승용차	iX	317
	Mini	승용차	Cooper	13
동풍	동풍 모터	MPV	Gelora	89
상하이자동차산업	MG	승용차	MG4	52
		SUV	MG ZS SUV	3

자료: 마크라인즈(Marklines)

-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따라 한국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포스코 등 다양한 기업이 시장 선점을 위해 참가 중
 - 한국 기업 진출은 크게 ①현대자동차 전기차 현지 생산 ②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셀 현지 생산공장 설립 ③포스코 전기차량용 강판 생산 등으로 나뉨
 - '23년 9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은 배터리 시험 생산 시장, '24년부터 양산 목표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 주요 동향(2023)〉

주체	분야	발표 시기	주요 내용
Mining Industry Indonesia (MIND ID)	전기차 배터리	20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켈 광산을 운영하는 자회사 Aneka Tambang과 국영 석유기업 Pertamina, 그리고 국영 전력기업 PLN과 협업하여 '인도네시아 배터리'라는 약 1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추진 ○ Mind ID는 광업 부문을 담당하고, 중간 가공과 유통 부문을 Pertamina와 PLN이 관리할 예정
정부 (관광청조경제부)	전기차	20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정부 중점 육성 관광지인 토바호수, 리쿠팡, 보로부두르, 만달리카, 라부안바초 등에 전기차 우선 도입 추진
고객	전기차	20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전기차,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해 탄소 배출 제로 도전 발표 ○ 전기차오토바이 제조업체와 임대계약 등을 통한 협력을 통해 전환 추진

주체	분야	발표 시기	주요 내용
정부 (재무부)	전기차	202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배터리 혹은 전기 셀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2021년 10월 16일부 사치세 면세 * Peraturan Pemerintah No. 74 Tahun 2021 ○ 추가 혜택(홀짝제 대상 제외, 몇몇 지역에서는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부여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정부	전기차	202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인도네시아 방문 ○ 인도네시아 정부 주최 전기차 로드맵과 친환경 정책 행사 참석을 통해 협력 논의 ○ 내년 발리 G20 정상회의 의전차량으로 현대 제네시스 전기차 선정
포스코 인도네시아 정부	전기차	202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코 위도도 대통령 방한 ○ 전기차 강판 제작을 위한 포스코-인니 투자청-크라카우스틸 MOU 체결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202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11억 달러 배터리셀 합작공장 건설 완료, 시험 생산 시작, '24년 양산 목표 ○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인근인 카라왕 산업단지에 약 10만 평 규모로 건설되며 연간 전기차 배터리 약 15만 대분 이상인 10기가와트시(GWh) 배터리셀 생산

자료: 언론사 및 정부 발표 종합

Chapter



진출전략



※ 강점을 살리고 열악한 환경 및 사업 장애 요인을 진출 기회로 승화

- (역량 확대) 한류를 심분 활용해 청년·디지털 공약을 통한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강점 활용) GVC 관점에서 현지 생산·유통·판매를 통한 소비 시장 집중 공략
- (기회 포착) 정부 지원 사업 참가를 통해 인프라, 친환경, 스마트 분야 진출 기회 포착
- (위협 대응) 지속가능 발전, 틈새시장 직접 투자 진출을 통한 리스크 대응

1 PEST 분석

P 정치정책 (Polit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임기 동안 민주주의는 발전되었으나, 정부 고위급 인사 등의 부패는 만연한 상황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법 및 정책 적극 추진 (고용창출법, 국가전략사업, 신보건법 제정 등) • 한-인니 CEPA, RCEP 발효로 무역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강력한 수입 대체 프로그램 추진
E 경제 (Econom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소비 및 정부 지출 확대가 '23년 경제 성장(4.5~5.3%)을 견인 •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환율 유지 • 풍부한 천연자원을 토대로 광물 다운스트림 산업 개발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에 집중
S 사회문화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4위 인구 수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70.7%에 육박해 인구 보너스 최고 구간을 지나는 중 • 국가 GDP는 세계 16위 수준인 가운데 높은 빈곤율 • 전체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도이므로 할랄 문화가 중요한 사회
T 기술 (Technolog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글로벌 혁신지수는 27.9점으로 132개국 중 75위로 기록 • '21년 정부의 R&D 분야 지출은 약 0.3%로 주변국 대비 낮은 비율 • 국가 단위 디지털 산업 육성 정책과 디지털 친화 가속화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인도네시아 시장 SWOT 분석〉

<p>강 점(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분야에 대한 한국 기술 인지도 및 경쟁력 • 우수한 디지털 역량 및 기술 보유 • 한국 문화·콘텐츠의 지속적인 약진 	<p>약 점(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제품 대비 낮은 가격 경쟁력 • 정부 정책(규제)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p>기 회(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주도 경제 전환 •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류 문화 관심도 • 대규모 인프라(친환경 및 스마트 산업) 프로젝트 추진 	<p>위 험(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일 선점 시장으로 높은 진입 장벽 • 급속도로 증가하는 임금 수준에 따른 부담 •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수입대체 기조 강화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간 중점 협력 신산업 분야 진출 추진 • 디지털 마케팅으로 주요 소비자층 중점 공략 • 한류를 활용한 생활소비재의 유통·판매 경로 다각화 	협력 유망 분야 및 디지털을 공략한 시장 진출 기회 확대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신산업 선점 추진 • GVC 구축 관점에서 제조업 진출 기회 포착 •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 모색 	기술 이전 및 현지 소싱 가능 분야 집중 공략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을 앞세운 친환경/스마트 산업 분야로의 진출 기회 모색 • 양자 FTA 활용 가격 경쟁력 강화 	정부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진출 기회 포착
WT 전략 (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유력 기업과 협력해 운영 리스크 대응 • 시장 및 정책의 면밀한 분석으로 사업 리스크 최소화 	현지 직접 투자 진출을 통한 리스크 대응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분야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진출 기회로 전환 ○ 현지 역량 있는 제조사와 협업(기술 이전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 및 공략 ○ 원자재에 대한 현지 소싱 확대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대체 프로그램 대응
식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및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홍보 및 인지도 확대 ○ 정부 정책(할랄보장법)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할랄 가치사슬로 진입 전 테스트 베드 기회로 활용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뷰티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으나,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주 소비자에게 맞춘 제품 개발 필요 ○ 할랄 인증 및 BPOM 등 관련 수입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시장 및 진출 여건에 대한 사전 준비 필수
인프라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을 통한 신수도, 친환경, 스마트 산업 등에서의 기회 창출 ○ 프로젝트별 정책(인센티브, 진출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리스크 대응
한류, 디지털, 경제발전	<p style="text-align: center;">한류와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새로운 기회 창출</p>

3-1. 의료기기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건강 인식 변화와 수요 증가를 진출 기회로 전환
 - 세계 4위 인구 규모, 소득 수준 지속 향상 및 보건법 개정 및 의료 수준 개선을 위해 정부는 큰 노력 중
 - * 인도네시아 보건부, '20~'24년 인도네시아 총 보험 지출액 연평균 18.2% 증가 전망
- 현지 기업과의 협업(기술 이전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 및 공략
 - 현지 생산이 어려운 품목 집중, 패키징 계약 체결, 현지 네트워킹이 가능한 파트너사 협업으로 현지 진출
- 원자재에 대한 현지 소싱 확대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대체 프로그램 대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3년 8월 옴니버스 보건법 제정을 통해 보건 산업 공급망 강화 의지 강조
 - '19년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45억 달러 수준이며 '14년 국민건강보험 출범에 따라 매년 국민의 의료 서비스 수혜 범위 및 빈도가 확대되고 있음
 - 수입산 의존도가 높은 시장으로,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5위임
 - 국내 원자재 및 제품 우선 사용, 국내 R&D 시설 확충 및 제품 생산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수입산 의료기기를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함
-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보건부 등록 및 판매 관련 진입장벽 강화
 - (할랄 인증) '26년부터 전 의약품 및 일부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Non-Halal 로고 표기는 시장에서 차별적 요소로 작용
 - (수입 불가 리스트) 현재 79가지 제품군에 대해 수입 불허, 다만 현지 수급 문제 또는 현지 제품과 기능 및 재료가 다르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 수입 가능
 - (TKDN) '22년 TKDN 적용 의료기기 품목 대폭 확대, 수입 제품을 현지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부품을 들여와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전환 추세
 - * Global Atlas에 의하면 '16~'20년 TKDN으로 인해 의료기기 품목의 수입 30% 감소
 - (BPJS) 국민건강보험제도로서, 의료보험에 포함된 의료기기는 2년마다 정부 조달기관에서 입찰, 2년마다 가격을 낮추라는 압력이 발생하는 등 변동성 노출
- 의료기기 주요 플레이어는 병원·검사기관(구매자) 및 수입사(수입·유통)
 - (검사기관)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먼저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병원 진료를 받는 문화가 있음
 - * 주요 검사기관 : Prodia, Kimia Farma, Pramita, Citro, Biomedika, Parahita 등

- (병원) 사설 병원과 국립 병원으로 구분되며 사설 병원이거나 비보험 서비스는 관계없으나,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품목은 정부 조달 시스템을 통해 구입
- (수입사) 보건부 의료기기 유통 허가(IPAK, Izin Penyalur Alat Kesehatan) 취득 필수
 - * '21.2월부터 옴니버스법 시행령에 의해, 의료기기 수입 및 유통 관련 법인 설립 시 외국인 지분 취득 100% 가능 (기존 최대 49%)
- 현지 반입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및 규제
 - 의료기기 및 건강에 관련한 생활기기는 인도네시아 보건부 등록(ALKES) 의무
 - 보건부 등록은 현지 수입사 위임 또는 현지 투자 법인 설립을 통해 가능
 - 한국과 마찬가지로 생명과 관련된 직결성에 따라 A~D등급으로 분류되며 D로 갈수록 요청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등록 기간 및 비용 증가

〈위험도에 따른 의료기기 구분〉

등급	의료기기 구분	심사 등록비 (천 루피아)
Class 1/A	오용을 하더라도 환자에 유의미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 의료기기	1,500
Class 2a/B	오용하면 환자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의료기기	3,000
Class 2b/C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료기기 등록 시 위험 평가서, 안전성 입증 평가서 제출	3,000
Class 3/D	환자/간호사 등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 유통 전 위험 평가서, 안전성 입증 서류, 임상시험 결과 등 제출	5,000

자료: 인도네시아 보건부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인도네시아에서 자체 조달이 불가능한 기기 위주 지속적인 수요 보유
 -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품목은 호흡기기, 촬영장치, 영상진단기기 등이며, 인공관절 분야는 가장 높은 수입 비중이 절대적
 -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에 따라 원격의료 시장이 급성장, 원격의료와 연계되는 진단기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원격진단 지원용 웨어러블 진단기기, 특수 진단기기 등(Alodokter)

- 인도네시아 시장 및 문화에 맞는 진출전략 수립 필요
 - 토털 솔루션 방식 제품 마케팅 추진 : 현지 병원은 특정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패키지로 계약하는 경향이 있어 이와 같은 형태로 현지 파트너사와 협업
 - 주요 네트워크 직접 관리 : 현지 파트너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인도네시아 출장 및 현지 의사들을 한국에 초대해 네트워크를 다지는 것이 좋음
 -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 현재 TKDN 정책 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현지 로컬 비중을 확대하고 환경친화 인증, 할랄 인증을 받는 방안을 고려
 - * 신보건법 제정에 따른 의료산업단지 확대로 현지 생산을 위해 입주 검토

※ 의료기기 네트워크 관리 방법(D사)

- 의료기기 구입에 있어서 최종 사용자인 의사들의 의사 결정권이 크며, 1명의 저명한 의사의 제자들이 사단을 만들어 수술 기구나 기법들을 그대로 사용
- 이런 민간 의료기기 협회들과의 네트워크는 대리상에게 판매를 위임했다라도 직접 관리가 필요. 한 번씩 한국에서 직접 네트워크 구축차 방문하는 것을 추천
- 리베이트 영업이 아직까지 많이 있기에 가격 경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 자만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도 있음

3-2. 식·음료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류 및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홍보 및 인지도 확대
 -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산 식음료 수출 증가 추세
 - * 한국 드라마에 방영된 떡볶이, 김치, 소주 등 인기, 바나나우유 등 음료수 수요도 증가
- 할랄보장법에 대비하고 활용하여 글로벌 할랄 가치사슬로 진입 전 테스트 베드 기회로 활용
 - 식음료에 대한 할랄 인증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할랄 마케팅 추진 필요
 - 식음료 분야는 인니 정부의 주력 육성 산업군으로 할랄 제품 수출 장려 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인도네시아 식음료 시장에서 한국 상품 폭발적 인기 추세
 - 식품 시장은 약 263조 달러, 음료 시장은 55조 달러('22)로 전년 대비 소폭 성장
 - 한국 식품 카테고리의 현지 주요 쇼핑몰 수입식품 판매량 2위(21.7, Kompas), 특히 라면, 과자, 떡볶이 등 한국 콘텐츠에 자주 등장하는 식음료 제품 인기

- '22년 한국산 식품 수출액은 2억 7,6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
- 하이트 진로, 할랄 시장으로 알코올 주류 선호도가 전통적으로 낮으나 최근 한국 콘텐츠 인기로 소주 등 주류 제품 수출 최근 4년간 연평균 4% 증가
- 현지 진출을 위해 현지 식약청 인증(BPOM) 취득 필수, 할랄 인증 의무
 - BPOM은 제품별로 등록하며, 한 개의 현지 기업만이 등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현지 수입상이 특정 제품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하므로, 현지 파트너사를 결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함
 - '24년 10월 식음료 분야 할랄 인증 제도기간 종료,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의 판매대 분리, 비할랄 제품의 경우 '돼지고기 성분 포함' 등의 특정 로고가 포함되며 할랄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될 수 있음
- (식품 트렌드) 선제적 할랄 인증 취득으로 인도네시아 식품 시장 진출
 - 불닭볶음면은 '17년 선제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취득하여 타 수입 라면과 차별성 확보, 특화된 맛과 품질로 현지 국민 라면으로 자리매김
 - '22년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는 인도네시아 베이커리 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 양사 모두 할랄 인증을 취득하며 인니 시장 로컬라이제이션에 집중하고 있음
- (음료 트렌드) 단맛이 강한 비탄산음료 위주 시장, 최근 소주 수요도 증가
 - 현지 편의점 등에서는 탄산음료나 탄산수 비중이 낮거나 없으며 주류는 규정상 판매 불가함. 주스, 유제품, 차류 등이 주로 판매되며 단맛이 강한 경향
 - 자카르타 소재 대형 마트 Grand Lucky의 '22년 최대 판매 수입 식음료 제품은 바나나 우유였고, '21년까지는 '허니버터아몬드'였음
 - 소주 등의 인기도 거세나, 가격을 크게 낮춘 현지 생산 소주가 한국어 라벨을 달고 주로 유통되며, 포도맛, 복숭아맛 등의 맛을 첨가한 소주가 잘 팔림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정부 기관 지원 사업 참가를 통해 초기 시장 개척 지원 타진
 - KOTRA, AT, 한국무역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현지 진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케팅 가능
 - 특히 AT에서는 농식품 관련 해외인증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에 장애물로 여겨지는 인증 분야 일부 비용을 지원

- 한류 마케팅을 통한 마케팅 활동 추진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폐점 위기에 놓인 인도네시아 카페가 ‘오징어게임’ 테마로 변경한 후 매출액이 3배 증가 보도
 - '22.6월, 인도네시아 건강식 라면 브랜드 레모닐로는 NCT Dream을 모델로 기용하며 매출액 급증, 현지 국민라면 Mie Sedaap은 최시원을 모델로 사용하여 맞서고 있는 등 현지 브랜드의 한류 마케팅 경쟁 심화 추세

- 할랄 인증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할랄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 식음료의 할랄 인증 의무화 계도기간은 '24년 10월 17일부 가장 먼저 종료
 - 할랄 신청 시 서류 준비와 검사를 위해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지 생산시설에서 돼지고기 관련 시설을 전면 분리하는 등의 시설 점검이 필요함
 - 한국 생산 경험 및 기술, 원자재 공급 기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을 통한 현지 유통가격 적정화, 할랄 인증 취득 고려
 - 현지에 식음료 분야 직접 투자를 기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 역점을 두고 조성 중인 할랄산업단지도 눈여겨볼 만함

※ 할랄산업단지 조성 동향(인도네시아 산업부)

- 정부에서는 인도네시아를 할랄 선도국으로 개발하기 위해 총 8곳의 할랄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 할랄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할랄 관련 모든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단지에는 할랄 인증에 필요한 모든 제반 시설이 입주할 계획
- 더해서 산업부에서는 입주기업 대상 할랄 인증 FAST-TRACK과 세제 인센티브도 계획하고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할랄 교차 인증을 논의 중에 있어 인도네시아와 할랄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들은 할랄산업단지 투자를 추천

3-3. 화장품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K-뷰티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으나,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주 소비자에게 맞춘 제품 개발 필요
 - 한국 콘셉트의 현지 생산 화장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을 빠르게 공략 중
 - 고객 세분화 및 타깃 소비자층에 맞는 제품 개발 및 맞춤 마케팅 필요
- 할랄 인증 등 수입 규제 및 인허가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시장 및 진출 요건 관련 사전 준비 필수
 - 할랄 인증 제품 수요 증가 전망, 선제적 인증 취득 또는 현지 생산업체와 협업으로 대비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성장 전망 긍정적, 화장품 현지 생산 급증 주목
 - 화장품 시장은 '21년 7조 달러 규모, '26년까지 연평균 6% 성장할 전망
 - 최근 한국 화장품과 유사한 디자인 및 기능을 내세우며 할랄 인증, 유기농 인증을 취득하고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춘 현지 브랜드 증가, 현지 시장 빠르게 공략 중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규제 강화 기조
 - 제품의 수입요건 확인·보고 시점을 '통관 후(Post-Border)'에서 '통관 시(Border)'로 변경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중(11.1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 정부는 자국 산업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수입 규제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책 동향 등에 예의 주시 필요
- (K-Beauty) 인도네시아인이 선호하는 수입 화장품은 한국 제품
 - '17년부터 한국산 화장품 수입 급증하기 시작해 '22년 한국산 화장품 수입시장 점유율은 2위(4,000만 달러)로 미국·유럽 제품보다 인기
 - 인도네시아는 뷰티 부문에서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제품을 가장 좋아하는 국가로, 한국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한 한국산 화장품 인기
 - 다만, 한국산 유사한 현지 화장품 출시, 현지 화장품 브랜드의 한국 연예인 모델 기용 등을 통해 한국 화장품 시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음

〈인도네시아 화장품(HS Code 3304) 주요 수입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8
1	중국	63	44	62	131	159
2	한국	38	46	59	40	35
3	프랑스	34	19	31	30	20
4	미국	34	25	28	22	18
5	태국	23	19	24	28	17
전체		254	257	309	329	305

자료: Global Trade Atlas

- (할랄) '26년 할랄 인증 제도기간 종료, 현지 할랄 마케팅 성공 사례 증가
 - 할랄 인증 선두 주자는 현지 기업 PTI와 미국 로레알, 동남아 지역에 공급하는 공장에 대해 할랄 인증을 선제적으로 취득해 시장 공략

- 현지 화장품 ‘Wardah’는 동물성 성분(태반, 콜라겐, AHA 등)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할랄 마케팅을 통해 인기 급성장, 인도네시아 대표 온라인 쇼핑몰(쇼피, 토코피디아)에서 화장품 판매 점유율 2위(’21)

■ 진출전략

- 디지털 마케팅 활용
 -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휴대폰 이용 시간이 가장 긴 국가로 SNS 마케팅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홍보 매체임
 - * ’22년 기준, 1인당 모바일 앱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5.7시간으로 전 세계 1위(App Annie)
 - 화장품의 경우 단순 제품 홍보보다는 현지에서 인기있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제품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인플루언서 규모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음
- 역량을 갖춘 현지 유통 파트너 발굴
 - BPOM 인증 유효기간 동안은 인증을 받은 현지 수입자가 독점권을 갖고 현지에서 유통하므로 적절한 유통 파트너 발굴과 관계 유지가 중요함
 - 현지 수입자가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업이면 문제가 없지만, 마케팅과 유통 역량이 부족하면 인증 이후 진출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
 - ’21년 초까지는 BPOM 인증 없이도 현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구 형태로 한국 화장품 수출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불가. 현지 유통사와 협업을 통한 BPOM 취득이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식임
- 할랄 인증 의무화 대비
 - ’26년부터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어 비할랄 제품은 ‘돼지 성분 포함’ 등의 로고가 포함되거나 할랄 제품과는 별도 매대에서 판매되는 등 유통 시 차별적으로 대응받게 됨
 - 이에 따라 할랄 인증 취득 또는 현지 생산시설 OEM 등의 진출전략 필요
- 정부 지원사업 적극 활용
 - 식·음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KOTRA를 포함해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현지 유통망 입점, 인증 취득 지원, 거래선 발굴 등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기관 사업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3-4.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국-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력을 통한 신수도, 친환경, 스마트 산업 등에서의 기회 창출
 - 신수도 건설로 칼리만탄 지역의 도시화, 주택, 인프라 수요 확대 예상
 - 7개 주요 군도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로, 건설, 플랜트, 환경 등 프로젝트 多
- 프로젝트별 정책(인센티브, 진출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사전 준비 및 리스크 대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 인도네시아는 국가 개발 및 경제 발전, 투자 유치 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목적으로 15개 분야 212개 프로젝트 추진 중

〈인도네시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 구분	프로젝트 수	프로젝트 내용
다목적 댐 건설	54	홍수 조절, 연안 보존 시설 1,000개 저수지 개발 용수 공급 속도 개선 등
도로 및 다리 건설	53	8개 유료도로 건설 프로젝트 군도 간 연결 도로, 다리 국도 개선 및 보수
지역 인프라 개발	19	지방 산업공단 지역 개발 병원, 교육 인프라 구축
정수 및 위생, 폐기 처리 시설	15	폐기물 에너지 처리 시설 친환경 목적 정수 시설 수력발전소 개발
항구/항만 시설	14	군도별 국제항구 추가 건설 항만 시설 유지보수
에너지 및 자원	14	니켈 제련소 개발 리아우주 태양광발전소 복수마트라 화력발전소
철도 건설, 철도 운송	13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자카르타 지하철·경전철 운행 구간 확대 지방 도시 경전철·지하철 건설 광물자원 운송 철도 개선

프로젝트 구분	프로젝트 수	프로젝트 내용
공항	6	칼리만탄 신공항 건설 자카르타 국제공항 4터미널 파푸아 신규 공항
의료/보건 시설	6	지방 전문 의료센터 설립, 치료/재활 센터 국민 보건 시설 확충
주거단지 개발	2	전국 서민형 주거단지 개발 수도권/신도시 주거단지 개발
해변 제방	1	수도권 해수면 침수 방지
교육 부문	1	국가 발전 기술 훈련/연구소
관광 부문	1	지역별 관광특구, 관광시설 신규 건축 및 유지 보수
플랜테이션	1	농업/산림업 지원
기타	12	지역별 투자 유치 경제특구 조성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인도네시아 건설산업의 특징과 우리 기업 진출 시 고려사항」('22.9)

- 우리 기업이 참여한 주요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음

〈한국 기업 참여 인도네시아 건설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자보데벵 경전철 프로젝트 (LRT Jabodebek)	자카르타-보고르-데폭-브카시를 잇는 광역 노선으로, 길이 44km, 17개 역으로 구성됨. 2023년 초 운영 예정임. 우리 금융사 H, S사가 파이낸싱 참여('20년)
반타르그방(Bantargebang) RDF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자카르타 인근 반타르그방 지역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고품 연료(RDF) 플랜트 개발 프로젝트로, 우리 중소기업 D사가 수주에 성공('22.6월)
라인(LINE) 프로젝트	반텐(Banten)주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조성 프로젝트로, 우리 L사가 인니 자회사와 합작해 2025년 완공 예정. 연간 에틸렌 100만 톤, 프로필렌 52만 톤, 폴리프로필렌 25만 톤 생산 예정

자료: 언론보도 종합,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신수도 건설
 - '22년 2월 신수도법 통과로, 340억 달러의 대규모 프로젝트 본격화
 - 6대 클러스터 개발을 통해 신수도를 국가 경제 허브로 조성하는 계획 추진
 - * (1)청정기술산업(재생에너지, 전기차) 클러스터 (2)통합 제약산업 클러스터 (3)지속가능한 농업 클러스터 (4)에코 투어리즘 및 헬스 투어리즘 클러스터 (5)화학 및 석유화학제품 클러스터 (6)저탄소 에너지 클러스터
- '24년 인프라 예산에 422.7조 루피아(약 273억 달러) 배정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3년 국가예산안 초안(RAPBN)에서 인프라 부문에 전년 대비 7.8% 늘어난 422.7조 루피아 배정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현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지속적인 시장 동향 파악
 -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이 입찰 공고를 하는 경우 조달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인도네시아 신문 및 영자신문에 입찰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물품 조달은 정부조달 사이트(www.lkpp.go.id)나 인니 조달전문협회(iapi-online.org)를 참고, 건설 부문은 인도네시아 공공조달 입찰 사이트(www.pu.go.id)를 통해 확인 가능
 - 또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에서 연간 발간하는 그린북(Green book), PPP북(PPP Book) 등을 통해 당면한 프로젝트 개요 확인이 가능하고 블루북(Blue book)을 통해 중장기 계획 파악 가능
 - * 중장기 계획인 프로젝트 중 원조 공여기관이 지원 의사를 표명한 프로젝트에 대해 그린북으로 연간 발간 중. PPP북은 민관 합작 가능 프로젝트에 대해 연 단위 공개
 - 해당 과정에 대해 한국의 주요 건설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정리하여 배포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 동향 파악 필요
 - * 해외조달정보센터, 해외건설정보종합서비스(icak.or.kr) 등
 - 입찰에 성공한 한국 기업 대상 납품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 기업 자체 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 정부 지원사업 활용
 - 정부에서는 EDCF, ODA 등 사업을 통해 발생된 프로젝트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
 - 이 밖에도 KOTRA 등 관련 유관기관에서는 현지 발주사 및 바이어 발굴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초기 진출 시 참고
- 인도네시아 정부 국산 부품 사용 정책에 따른 투자 형태 고민
 - 프로젝트 선정 시 국산 부품 사용 비중 준수 여부도 하나의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한국에서 수출하는 형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애로 예상
 - 이에 따라 현지에서 진행되는 비즈니스에 따라 직접 투자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기초화장품, 메이크업용 제품류	선정사유	SNS 마케팅과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화장품 인기 상승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인니 한국산 기초화장품·메이크업 제품 수출 증가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백만 달러(2020) → 59백만 달러(2021) → 40백만 달러(2022) - 중소/중견기업의 브랜드 진입도 증가하며 성공 사례 발생 ○ K-뷰티 인기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한국 콘셉트의 우수한 품질 및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현지 생산 브랜드 비약적 성장 ○ 화학 성분보다는 식물 추출 천연성분이 들어간 기초 제품을 선호,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우세 ○ '21년부터 현지 식약청 인증(BPOM)을 보유하지 않은 제품의 쇼피를 통한 직구 수출 불가, BPOM 취득 후 정식 통관을 통해 수출해야 함 ○ '26년부터 화장품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수출 가능하나, 논할랄 표기로 인해 차별받을 수 있음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시장 내 한국 화장품 점유율 2위 ○ 주요 경쟁사 : 로레알, 더바디샵, 시세이도, Wardah, 바이어스도프(니베아), 유니레버, Scarlett, Somethinc, Whitelab, Azarine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역량 있는 유통사와의 협업을 통한 시장 진출 ○ 현지 할랄 및 무해한 성분에 민감한 트렌드, 할랄 인증 및 유기농 인증 취득과 더불어 관련 마케팅 시행
품목명 2		
초음파 영상 진단기	선정사유	의료시장 확대로 고성능 의료기기 수요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한국산 초음파 영상진단기 수요 증가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백만 달러(2020) → 14백만 달러(2021) → 14백만 달러(2022) ○ 출생률이 2명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질환 초음파 진단용으로 수요 증가가 전망되나, 고품질 저가격의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 추세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제품이 시장 점유 ○ 주요 경쟁사 : GE Healthcare, Pfizer, Siemens, Philips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현지 수입유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진출 ○ 현지 생산이 어려운 고부가가치 품목 집중 ○ TKDN(국산품 사용 비중) 등 수입대체 정책 대비
품목명 3		
콘택트 렌즈	선정사유	K-콘텐츠 및 SNS 등을 통해 뷰티 렌즈 인지도 확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對인니 한국산 콘택트 렌즈 수출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백만 달러(2020) → 7.4백만 달러(2021) → 7.0백만 달러(2022) - 한국산 제품 인니 수입시장 2위 점유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제품 점유율 높으며, 그 외 스위스, 미국 제품 수입, 현지에서는 생산되지 않음 ○ 주요 경쟁사 : Johnson&Johnson, Coopervision, Cibavision, Newlook, X2, Geo Medical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소비 대상이 미용 렌즈 관심도 높은 MZ 세대 집중 - 98%가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되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 ○ 인도네시아 보건부 규정상 의료가기 C등급에 속해 보건부 인증을 위한 관련 서류 사전 구비 필요 - 위험도에 따라 A에서 D로 구분하며, D가 가장 위험한 제품
품목명 4		
플랜지	선정사유	다양한 공장 및 제조 건설 사업 추진에 따라 필수 장치인 플랜지 수요 증가 전망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對인니 한국산 플랜지 수출 규모 - 11백만 달러(2020) → 5.8백만 달러(2021) → 5.3백만 달러(2022) ○ 정유 시설이나 석유화학 시설 등 배관이 많이 사용되는 장치 산업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내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장치산업 역량 강화 프로젝트 예상에 따라 수요 증가 전망
	경쟁동향	○ 내수 기업 제품과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 제품 사용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 프로젝트 수주 동향 면밀 파악 - 프로젝트 수주 국가에 따라 관련 부품사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동향 파악 필요 ○ 점점 강화되는 인도네시아 정부 규제 대비 필요 - 사전 수입 규제 물량 축소 추세, 국산 부품 사용 우선 비중 등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수입대체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한국 기업의 EPC 프로젝트나 ODA의 경우 해당 규제를 극복할 수 있어 이와 같이 증가하는 인니 정부의 규제에 대비하는 전략 수립 필요
품목명 5		
비스킷(과자)	선정사유	한류 인기에 따라 한국 식품 및 과자 수요 급증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드라마에 나온 식품 중 과자 수요도 같이 증가 - 2022년 한국산 과자 수입은 2.8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5.2% 증가 - 1위인 태국(30백만, +43.8%), 2위인 말레이시아(11백만, +2.0%) 수입 역시 증가 추세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제품 점유율 높음 ○ 주요 경쟁사 : Indofood, Garudafood, Kraft Foods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OM 및 할랄 인증 사전 대비 ○ 한류를 심분 활용한 마케팅 추진(드라마 및 인플루언서 물품 홍보)
품목명 6		
라면	선정사유	화장품과 같이 한류 열풍으로 인한 인기 지속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라면에 대한 인기 지속 - 15백만 달러(2020) → 14백만 달러(2021) → 16백만 달러(2022) - 한국산 제품, 인니 수입시장 점유율 1위 (14.4%) ○ 한류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라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맛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로, 현지 인플루언서들이 콘텐츠 제작을 위해 활용하는 라면이 인기를 얻고 있음(불닭볶음면, 짜장맛 라면 등)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산 현지 라면이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할랄 인증 취득한 한국의 삼양(불닭볶음면)도 3~4위 수준 유지 ○ 주요 경쟁사 : Indofood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OM 및 할랄 인증 사전 대비 ○ 한류를 십분 활용한 마케팅 추진(드라마 및 인플루언서 물품 홍보)
품목명 7		
소주 등 주류	선정사유	무슬림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류 콘텐츠를 통해 소주 등 주류에 대한 관심 확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열풍으로 현지인들 사이에서 한국산 소주 인지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2020년 수입량이 일부 축소되었지만 수입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위 기록 - 1.8백만 달러(2020) → 1.7백만 달러(2021) → 1.8백만 달러(2022) ○ 소주 음용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 2위,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소주 음용률은 2020년 74.8%로 2016년 대비 65.8%p 증가해 홍콩에 이어 2위를 기록 - 수도 자카르타에 진로 참이슬을 전면에 내세운 참이슬 카페 운영 시작('21.11) - 포도맛, 복숭아맛 등 단맛을 첨가한 소주 제품이 인기 ○ 최근 현지 생산된 소주가 유통량이 크게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과, 한국어 라벨링을 갖춘 소주 제품의 현지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지 한국산 소주 가격은 약 1만 5,000원대로 진입장벽이 높음
	경쟁동향	○ 영국 Smirnoff Red, 현지 바람소주 등 다양한 제품 판매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OM 및 할랄 인증 사전 대비 ○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류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편으로 높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선납 법인세, 그리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며, 특별소비세는 알코올 도수별로 세금 부과 비중이 달라 사전에 파악 필요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건설 서비스	선정사유	각종 인프라 추진에 따른 건설 수요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기준 인도네시아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에 10.44% 비중으로 4위에 해당하는 국가 주요 산업 ○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000만 명의 인구로 인한 잠재적 내수 수요 기반과 부족한 인프라 시설 등으로 인해 건설과 토목, 건설 설비, 기계 분야 등 주목받는 시장으로 성장 - 제4차 국가중장기개발계획(RPJMN 2020~2024)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 추진 예정 - 35,000MW 규모의 전력발전소 추가 설립 프로젝트의 지속, 전 국토 광케이블 통신 연결 완료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기업 : Wijaua Karya, Waskita Karya, Pembangunan Perumahan, Adhi Karya ○ 민간기업 : Nusa Raya Cipta, Total Bangun Persada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포함 각종 기관 진출지원사업 참가 ○ 양국 경제협력사업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ODA/EDCF 등 사업 동향 파악
품목명 2		
의료 서비스	선정사유	2014년 공보험 체계 도입, 최첨단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45억 달러 규모이며, 그 중 수입품이 절반 이상인 28억 달러 규모를 차지. 한국산 제품은 비교적 고품질 고가격인 미국 및 유럽산과 저렴한 중국산 사이에서 포지셔닝을 하는 경우가 많음 ('21년 10월 KOTRA 메디컬 웨비나) ○ 병원 시설 확충 프로젝트가 민간협력사업(PPP) 형태로 발주되며, 해당 시설은 국립암센터, 대학병원 등임 ○ 애플리케이션 기반 온디맨드 헬스케어 서비스 등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이 발전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 인력 부족
	경쟁동향	Siloam Hospital, Medistra Hospital, SOS Medika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서비스 진출의 대부분은 외국인 지분율이 67%로 제한되어 있어, 진출 전 합작 파트너를 신중히 물색 ○ 헬스케어 공급망, 의료기관 의료기록 전산화, 원격진료, 고성능 통신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IT 분야 협력 ○ 제조·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분야 진출
품목명 3		
교육 서비스	선정사유	인도네시아 교육 수요에 맞추기 위한 온라인 교육시장 협력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 중 아동(0~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6%로, 전체 인구 1/4 이상을 아동 인구가 차지하고 있음. 세계 아동 인구 순위로도 5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아동 시장을 보유('20 인도네시아 키즈 콘텐츠 산업 동향, 한국콘텐츠진흥원) ○ 교육문화부 장관에 고액 창업자 임명, 에드테크(EdTech) 산업 발전 가능성 대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듀테크 서비스 종합 플랫폼 : Ruanguru ○ 튜터 매칭 플랫폼 : sukawu, PrivatQ ○ 교수활동 관리 플랫폼 : HarukaEdu, Kelase, Class Kita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공동 자격증 추진, 한-인니 고등교육 교환 제도 지원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콘텐츠 보급, 유/무선 접속 시스템 구축, 한류 활용 교육 프로그램(한국어) 수출 등
품목명 4		
금융 서비스	선정사유	비대면 금융 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기술 수요 ↑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의 빠른 성장 ○ 인도네시아 국민의 금융기관 접근성이 낮아 전자화폐 서비스가 발달. 또한 라이드헤일링 서비스의 발달로 인한, 대표적인 라이드헤일링 서비스 내에서 사용되는 오보(Ovo)와 고페이(Go-Pay)가 전자화폐 주도권을 잡으면서 핀테크 시장이 개편 ○ 인니 정부는 2016년 11월 핀테크담당국(BI-FTO, Bank Indonesia Technology Office)를 설립하여 기술 발전 및 수용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핀테크 규정집(19/12/PBI/2017)을 발표.(「인도네시아 콘텐츠 산업 동향」(2022년 9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은행 : BRI, BNI, BCA, Bank Mandiri, BTN, BII 등 ○ 외국계 은행 :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UOB, 미쓰비시 도쿄 등 ○ 핀테크업체 : Buka Dompot, Doku, Inapay iPay 88, iPayMu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추천, 할부 금융, 핀테크 기반 지불 결제 서비스, 카드 사업 등 스타트업 설립을 통해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진출을 위해 엑셀러레이터나 그룹사 등 투자자 물색을 권장 ○ 인도네시아 정부 은행·보험 업무 효율화 컨설팅 사업에 참여
품목명 5		
콘텐츠 (웹툰/애니)	선정사유	한류 문화의 핵심 분야로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인기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모바일 콘텐츠 시장 잠재 가치는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웹툰과 애니메이션은 인도네시아 내 한류 열풍 영향이 가장 많이 미치는 분야 중 하나임 - 한국 웹툰·애니메이션은 현지에서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콘텐츠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주로 진출 ○ 인도네시아 로컬 콘텐츠 비중은 최근 들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한국·미국·중국 등 해외 콘텐츠가 더 인기를 끌고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시장에 능통한 역량 있는 파트너 발굴 - 100% 외국인 지분 투자가 가능하나, 현지 민감한 콘텐츠 이슈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파트너사와 협업 권장 ○ 사전 지식재산권 등록 등 법적인 문제 대응방안 마련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현지 대기업 수요맞춤형 파트너링 확대	EV 수출 및 기술협력 상담회	'24년/미정
2		분야별 특화 핀포인트 상담회	'24년/미정
3	한류 확산 활용 소비재 시장 진출 심화	인도네시아 유통망(Tokopedia, iStyle 등) 입점 지원사업	'24년/온라인
4		인도네시아 소비재 전략사절단	'24.4월/미정
5	헬스케어 분야 시장 수요 적극 대응	국영 제약사 협업 웨비나 및 상담회	'24년/미정
6		GVC 재편 대응 한국 유망기업 상담회	'24년/미정
7		보건의료 협력 증진을 위한 웨비나, 상담회	'24년/미정
8	양자 및 다자 경제 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 창출	IK-CEPA, RCEP 등 FTA 활용 설명회	'24년/상반기
9		FTA 활용 유망품목 중심 상담회	'24년/미정
10	인니 수도 이전 및 스마트 시티 협력 기회 발굴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참여 기회 발굴	'24년/상시
11		스마트시티 온라인 로드쇼	'24년/하반기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인도네시아 대선	2월 14일	-
인도네시아 총선	2월 14일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	-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Indonesia International Textile Sourcing & Apparel Production Technology (봉제, 섬유)	'24.3월	
Solar Tech Indonesia (신재생에너지)	'24.3월	
Indonesia International Trade Show for Automotive Industry (자동차)	'24.5월	
Powergen Renewable Energy Indonesia (신재생에너지)	'24.5월	
Indonesia International Auto Show (자동차)	'24.8월	
Indonesia Maritime Expo (조선, 해양)	'24.10월	
All Pack Indonesia (포장기계)	'24.10월	
Indowater (수처리)	'24.10월	
Machine Tool Indonesia (일반기계)	'24.11월	
Cosmobeauty Indonesia 2024	'24.11월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대희	과장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	daeheekim@kotra.or.kr
2	Chitra Claudia	Specialist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	chitra@kotra.or.kr
3	Arindra Fauzan	Specialist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	arindra@kotra.or.kr
4	Samuel Edgar	Specialist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	samuel.edgar.x2.25@gmail.com

2024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